

코스피	2514.97	코스닥	860.68
	(-44.77)		(-22.04)
금리	3.930	환율	1339.70
	(+0.040)		(+9.60)

해파리·명태살 등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국내 수입 확인 02



## 비명계 반란...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더불어민주당 대표〉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李 '부결 촉구 메시지' 역풍으로  
향후 법원 영장실질심사 불가피  
리더 부재 민주당 내부혼란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 22대 국회의 원 총선거에서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분열'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표결 결과 총 투표수 295표에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추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여부를 판단받게 된다.

〈관련기사 6편〉

검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에 200억원 상당의 피해를 끼쳤으며 배임죄를 적용했고, '검사 사칭' 관련 이 대표의 재판 중 관계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거나 하도록 했다며 위증교사죄도 적용했다. 또한 쌍방을 대복송금 의혹과 관련해 외국환 거래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후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의 부당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안 설명이 길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이라고 고성을 질렀고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성도 이어졌다. 이날 표결에서는 148표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국민의힘·정의당·여권 성향 비교섭단체 의원 전원이 찬

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120표가 확보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28명의 의원들이 찬성표가 나왔어야 했다. 그런데 이날 28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오면서 체포동의안이 가결 처리된 것이다.

22일째 단식을 지속하고 있는 이대표는 이날 국회에 출석해 신상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이 대표와 만났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 운영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를 알고 있으나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박 원내대표에게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로 돌아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와의 대화 내

용을 의원들에게 전하면서 "당 혁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와 제가 함께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체포동의안은 부결에 투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각에선 박 원내대표가 22대 총선에서 비이재명계의 공천 지분에 대한 보장을 약속하면 체포동의안 부결해 주겠다는 식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다. 이 원내대변인은 "그런 제안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m-커버스토리

## '매파적 건너뛰기' 추가 인상 시사에 긴축 장기화 우려

美 기준금리 동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올해 말까지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준은 20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갖고 기준금리를 5.25~5.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두번째 동결 결정이다. 지난해 3월 이후 10차례에 걸쳐 금리를 5.0%포인트(p) 인상한 연준은, 올해 6월 한차례 동결한 뒤 7월 또 다시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단행했다.

〈관련기사 4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해에는 금리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금리인상 수준이) 근접했다고 보고 있다"며 "다만 아직까지 금리가 적정인지 판단하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만큼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날 FOMC 의원들은 점도표를 통해 올해 말 금리수준이 5.6%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미국 금리가 5.25~5.50%임을 감안하면 오는 11월과 12월 정례회의에서 금리를 0.25%p 인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현수준에서 유지하자는 의원은 7명, 올해 안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원은 12명으로 나타났다"며 "인플레이션 수준이 3개월 이상 긍정적 지표로 나타나야 하는 만큼 데이터를 통해 향후 금리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5.1%로 6월 전망치 4.6%와 비교해 0.5%p 높게 전망했다. 금리수준이 '더 높고 오래(higher for longer)'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인하시점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파월 의장은 "(인하할) 때가 오면 그때 알게 될 것"이라며 "언젠가 금리인하를 결정한다면, 금리인하 요인 중 일부는 인플레이션 하락과 실질금리 상승이 될 수 있다. 인하시점은 오겠지만, 아직은 불확실성이 많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혁신·보호 초점 자율규제... '온플법' 갈등은 숙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란 (上)

'기회의 땅' 온라인 세상이 변했다. 오래전 같은 입장으로 경쟁했던 온라인 시장은 어느새 사라지고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를 확보한 기업이 기술을 선도하고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일개 앱(APP)이 멈추자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현재,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은 모두 찬성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빅테크 기업에 대한 자율 규제와 강경 규제 두 입장을 훑어본다. 〈편집자주〉

온라인 플랫폼 기업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규제 강도를 두고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통과 땀 내년 자율규제기구 설립

시민단체, 전면 반대·대항 선언 빅테크 독식·불공정 행위 우려

21일 정부가 내놓은 플랫폼 자율 규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다음달 31일까지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서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 내 자율규제 기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정부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안에 전면 반대하고 최우선 대항을 선언했다. 시민단체는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집단 소송을 예고하며 해당 소송을 대표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카카오 모빌리티에 대해 집단 소송을 예고하며 해당 소송을 대표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지위남용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은 그 특성상 3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간단한 알고리즘 변경만으로 손쉽게 불공정 행위를 저지할 수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독점규제법은 온

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의 유혹으로부터 시장참여자와 시장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케 하는 취지의 법안이다.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2010년대 말부터 전세계적으로 대두된 논쟁이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태동기였던 1990년대와 현재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 낮은 진입장벽에 비슷한 수준의 기술로 경쟁전화적이었던 시장은 현재 천문학적 자본으로 기술 발전을 선도하고 최대 수십억 명이 이용하는 플랫폼 영향력으로 무장한 기업이 질서를 만들게 됐다.

〈2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교권 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당 사유 없이 직위해제 금지  
▲ 여야 "이규용 임명동의안, 오늘 처리 않고 25일 처리 협의" /사진 뉴시스

▲ 여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서 '머그샷 공개법' 의결  
▲ 정부, 강소남 국방상 등 대북 독자제재 발표



▲ '주소 기반 로봇배송 확산' 민관 협의체 본격 가동  
▲ 금지-확산 방지로... 제주 '노키즈존' 조례 상임위 통과 /사진 뉴시스

# 원산지 불분명 명태살 등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국내 수입

수입금지 '원형보존' 수산물 한정 '수산물 가공품'은 해당되지 않아 대구알 등 원재료 산지 표시 없어



지난달 29일 대구의 한 농수산물시장에서 시장 관계자가 생선의 방사능 수치를 재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가 불과 몇 주 전까지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명태살을 비롯해 청어알, 오징어, 해파리, 어란(명란 등) 등을 가공해 만든 수산식품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가공품 주원료인 수산물의 원산지는 표기돼 있지 않다. 정부가 후쿠시마와 주변 지역에서 생산된 활어·냉동생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입을 차단해왔으나 수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는 허술했던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은 이달 상순까지 후쿠시마산 대구알, 열빙어알, 해파리, 명태살 등으로 만든 식품을 수입해 왔다.

이달 초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A업체

에서 수입한 식품의 경우 주원료가 열빙어알, 대구알, 해파리, 명태살 등이다. 그러나 이들 원재료의 산지가 후쿠시마인지, 일본 내 다른 현인지, 아니면 제3국인지에 대한 표시는 없다.

지난 7월 25일 후쿠시마의 B업체에서 들여온 식품의 경우 해파리와 상어지느러미 등을 가공해 만들었다. 6월 9일 국

내 방사능검사를 통과한 C업체(같은 현)가 만든 제품은 열빙어알과 대구알, 명태살, 해파리 등이 주원료다.

올해 1월에는 청어와 열빙어알, 명태살로 만든 '이타마에즈쿠리니싱'이라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왔다. 후쿠시마 근해에선 명태가 잘 잡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0월 수입된 '시소노미쿠라게'라는 가공품에는 주원료 해파리에 더해 가다랑어추출물이 함유돼 있다.

지난해 5월 오징어와 명태살, 열빙어알 등으로 제조한, 또 같은 해 1월 어란·어육으로 속을 채운 오징어가 주원료라는 가공품이 수입됐다. 둘 다 '코모치아리이까'라는 제품명을 쓰고 있다.

같은 해인 2022년 3월에는 연어알이 주원료인 '간장절임이쿠라'가 방사능 검사에서 적당 판정을 받았다.

식약처가 공표한 항목에 따르면 이밖에 '다이야사리다'와 '멘타이사리다' '이타마에즈쿠리니싱' 등의 수산가공품이 수차례 수입됐다. 어묵제품도 있었다. 이들 제품의 제조사는 원료로 쓰인 수산물의 산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산물가공품과 관련해 "해당 제품을 제조·가공한 업소가 소재한 지역을 의미한다"며 "원료의 생산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라고 최

근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지난달 24일 시작됐다. 방류개시 이후 후쿠시마현에서 제조된 수산가공품이 수입된 공식기록은 아직 없다.

다만 후쿠시마 동북쪽의 이와테현에서 8월 31일 제조했다는 소스가 이달 20일 국내에 반입됐다. 이 제품에는 가다랑어엑기스가 함유됐다.

정부는 2013년 9월 이래로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접 현 8곳에서 생산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다. 단 금수조치는 원형이 보존된 활어·냉동생선 한정이고 수산물가공품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오모리현과 이와테, 미야기, 군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현이다.

이달 19일엔 아오모리현에서 만든 '참깨대구포스트(제조일자 7월 10일)'이 수입됐다. 주원료는 대구 페이스트라고 쓰여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 '14년 숙원' 실손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 통과까지 탄력 받을 듯 보험금 전자문서 청구 가능해져

14년 묵은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의 숙원이 성사되기 직전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통과까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법 개정안)은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전자문서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소비자들은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청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시스템으로 중계기

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면 된다.

법사위 통과로 간소화법은 14년 만에 국회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어 재논의를 하기로 한 18일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회 파행으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다.

보험업계는 간소화법의 본회의 통과 역시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소화법 반대 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설득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법사위에서 반대 의견도 없었으므로 이제 간소화법은 본회의에서 언제 통과되느냐가 중요

하다"며 "간소화법에 앞서 정치적인 현안(한덕수 총리 해임안 등)들이 먼저 남아 있어 지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단은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으나 본회의는 연중에도 계속 진행되므로 통과되는 것이 어렵진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와 소비자 단체로부터 간소화법 통과 요구는 꾸준히 제기됐다. 보험업계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 청구를 위해 서류가 4장 정도 필요하고 연간 약 1억건의 청구가 들어온다"며 "그러면 처리해야 할 서류가 얼마나 많겠느냐. 간소화가 되면 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 온플법 서두르던 前 정부, 제정은 실패

>> 1면 '혁신·보호 초점'서 계속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한 국가를 물론 전세계에 경제적·사회적·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대두된 규제론은 현재 어디에 방점을 뒀는지에 따라 규제 강도에 차이가 난다.

◆ 2021년 처음 대대적 논란 시작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논란과 법안 마련 필요성은 '플랫폼 국감'으로 불렸던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처음 불거졌다.

당시 국감에는 '네·카·라·쿠·배·당(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로 불리는 국내 초대형 빅테크 기업 총수가 전원 소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여기에 더해 넥슨, 이동통신3사, 메타(당시 페이스북), 애플

플코리아, 넷플릭스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총수와 책임자들이 줄소환 됐다. 납품·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 논란 등 전방위 문제가 제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안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문재인 전 정부는 몇 개월 남지 않은 시점이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으로 부르는 '온플법' 제정에 서두르기 시작했으나 입법에는 실패했다. 정부 주도 법안 제정 소식이 전해지자 기술과 시장 발전을 고려했을 때 규제법안 입법은 너무 이르다는 주장이 빅테크 기업과 국민의힘 등에서 쏟아졌다. 결국 '온플법'과 온라인 플랫폼 규제 문제는 제20대 대선에까지 주요 논쟁거리가 됐고 자율규제론을 내세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서 우선 일 단락됐다. /김서현 기자 seoh@

**장성황룡강 2023. 10. 7. ~10. 15.**  
**가을꽃축제**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강 일원

장성에서  
 정성스레 지은  
 청정 농산물

# 장성 FOOD

장성군  
**Jangseong**

# 언제·어디서나 AI 구현... 韓 '초격차' 메모리 중요성 커져

반도체 업계가 인공지능(AI) 시장을 둘러싼 경쟁에 돌입했다. AI 가속기 시장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가 자리를 위협받는 가운데, 국내 메모리 업계는 '초격차'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인텔은 미국에서 개발자 대상 인텔 이노베이션 2023을 열고 '실리콘노미' 시대를 선언하며 AI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리콘노미는 경제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로 성장한다는 개념, 인텔은 AI가 실리콘노미를 견인할 수 있다며 개발자에 언제 어디서든 AI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인텔은 이를 위해 연말 출시할 5세대 제온 프로세서(그래프리트 래피즈)를 AI에 최적화한다는 방침, 차세대 PC용 CPU인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메테오레이크)에도 처음으로 NPU를 탑재할 예정이다.

특히 인텔은 AI 반도체 업계 독보적인 점유율을 이어가는 엔비디아를 정조준했다. 가우디2를 비롯한 인텔 솔루션에서 AI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개발자 클라우드도 공식 출시하고, 리눅스 재단 산하 'UXL' 재단에 참여해 하드웨어간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통합 병렬 프로그래밍 '원API' 규격을 제공키로 했다. 엔비디아 쿠다 라이브러리에 대응해 자사 AI 반도체 활용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엔비디아 생태계도 포용하겠다는 얘기도.

### 반도체업계, AI시장 본격 진출 메모리 등 고성능 장비 수요 ↑

삼성·SK, HBM 점유율 양분 GDDR·CXL 등 기술력 뽐내

앞서 AMD도 지난 6월 AI 반도체 MI300을 공개하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와 성능 우위를 강조하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구글이 TPU를 개발하는 등 엔비디아를 대체할 AI 반도체 개발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 ◆ AI칩 경쟁 본격화

엔비디아 H100, 인텔 가우디, AMD MI300, 구글 TPU, 테슬라 D1, 최근들어 주가를 올리는 AI 반도체는 통상 AI 가속기를 가리킨다.

AI 가속기는 병렬 연산을 하는 칩으로, 그래픽 프로세서(GPU)와 거의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다. 그래픽 카드가 일찌감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스케일링 기술을 발전시켜왔던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최근 AI 개발자에 주목받는 엔비디아 쿠다 라이브러리가 방대한 것도 오랜 기간 활용됐기 때문이다.

다만 GPU는 그래픽 처리에 초점을



엔비디아 H100.



SK하이닉스가 소개한 GDDR6 AiM 기반 AI 가속기



인텔 데이터센터 GPU 프로세서를 선보이는 그래픽 라벤더 인텔 CEO

맞춘 탓에 AI 가속기에 불필요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가격이나 효율성에서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엔비디아는 연산에 집중한 텐서 코어를 활용해 AI 가속기 효율을 높이고 있다. 그래픽카드용 칩에는 쿠다 코어를, AI 가속기에는 텐서 코어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둔다.

엔비디아에 이은 GPU 시장 2위인 AMD도 같은 전략이다. GPU를 여러개 합치는 방식으로 대대적인 성능 향상을 이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인텔도 뒤늦게나마 GPU 기술을 끌어올리며 데이터센터용 GPU도 꾸준히 선보이고 있지만, AI 전용 가속기인 가우디2는 연산에 중점을 둔 텐서 프로세서를 조합해 만들었다.

그 밖에도 구글 TPU와 테슬라 D1, 국내 팹리스인 리벨리온과 퓨리오사 AI 등 역시 신경망 프로세서인 NPU로 가속기를 만들고 있다.

일단은 GPU 가속기가 높은 범용성과 방대한 라이브러리를 앞세워 시장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엔비디아가 전체 8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AMD도 시장 공략에 힘을 더하고 있다.

다만 GPU 가속기가 비싸면서 물량까지 부족해지면서 AI 전용 가속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인텔 가우디2가 엔비디아 H100에 비견할 만한 성능을 증명하고 있고, 엔비디아 가속기를 수입하지 못하는 중국에서도 적극 도입하면서 중국에서는 인텔이 추가 주문을 넣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 ◆ 메모리는 삼성·SK 양분

AI 가속기 핵심은 프로세서지만, 고성능 메모리를 붙이지 않으면 제 성능을 구현할 수 없다. 병렬 처리 방식이라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도 대폭 커진 만큼, 이를 따라잡을 수 있는 용량과 속도를 내야 한다. 때문에 AI 가속기 패키지는 대부분 AI칩과 메모리를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HBM은 D램에 구멍을 뚫어 직접 연결해 합친 메모리다. AI 열풍으로 갑작스럽게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 상황, 미세 공정 한계로 기술 개발이 지연되면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HBM 시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사 합쳐 90% 정도로 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처음 개발하고 삼성전자가 뒤따르며 기술을 발전시켜왔

다. 마이크론도 HBM을 만들고는 있지만, 후공정 기술은 물론 미세공정에서도 이미 뒤쳐진 탓에 점유율 확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제는 HBM도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칩을 붙이는 방식이라 공정이 복잡해 부피도 크고 발열 문제도 해결하기 쉽지 않다.

그래픽카드에 사용하던 고성능 메모리 GDDR 규격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플래그십급 AI칩보다는 보급형에

타재가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최근 GDDR7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메모리에 프로세서를 더한 PIM 기술도 주목 받고 있다. 메모리 병목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효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AI 가속기에 사용할만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에서 PIM 기술을 적용한 GDDR6 AiM을 기반으로 주문형 반도체(A-SIC)를 조합해 만든 AI 가속기 'AiM

X'를 소개하고 성능까지 시연했다. 추후 SK사피온과 함께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계획임도 밝혔다.

더 빠른 인터페이스, CXL(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규격 메모리도 AI 시대를 겨냥한 노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CXL 기반 메모리 개발을 끝마친 상태다. 국내 팹리스 기업 파네시아가 CXL 기반 AI 가속기를 처음으로 만들어 주목받기도 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가장 한국적인 곳 경북**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한국의 발자취를 따라서

- 신비로운 철의 왕국 대가야
- 신라 천년의 수도
- 역사와 문화의 고갯길
- 노블레스 오블리주
- 고령 지산동 고분군
- 경주 석굴암
- 문경 새재
- 안동 임청각
- 불교 건축의 정수
-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경북에 이런 유서 깊은 명소가!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사진 출처: 문화재청

# 국제유가 등 변수 많아... “물가 잡힐 때까지 고금리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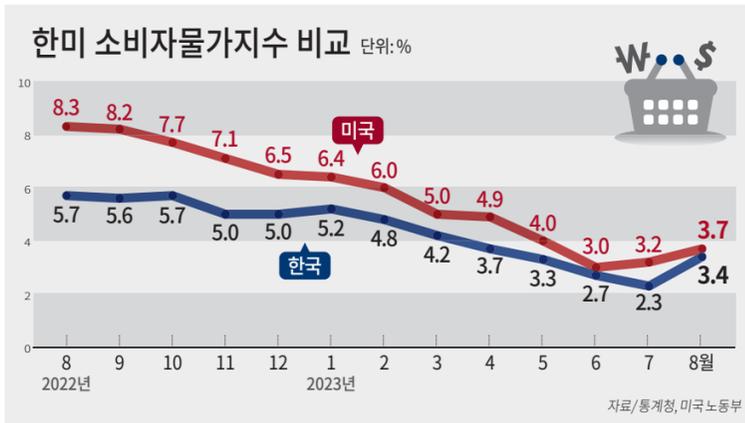
## 美 기준금리 동결

FOMC, 내년 금리 5.1% 예상  
美 CPI 지난 8월 3.7%까지 ↓  
모든 영향 평가·변수들 감안

20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발표한 점도표를 보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은 내년 기준금리를 5.1%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예상했던 4.6%보다 0.5%포인트(p) 증가한 수준이다. 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야 한다는 시장과 달리 금리수준을 더 높고 오래(higher for longer) 지속해 물가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 ◆ 물가 흐름 따라 금리변경

사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살펴보면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은 뒤 올해 1월 6.4%, 5월 4.0%, 8월 3.7%까지 떨어졌다. 1년 사이 빠르게 안정화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연준이 여전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긴장을 늦춰 물가가 고착화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초부터 1960년대 말까지 장기간 물가가 안정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사라지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통화량

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을 실시했다. 경기부양으로 공급보다 수요가 늘어나자 물가는 상승했고, 때마침 터진 오일쇼크는 물가를 더 치솟게 만들었다. 1965년 1%대를 유지하던 물가는 1971년말 12.3%로 상승했다.

당시 연준은 물가가 올라갈 때 빠르게 금리인상으로 대응하고, 물가가 내

려오면 빠르게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물가안정과 경기부양을 모두 잡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물가가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인하는 오히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했다. 결국 1970년부터 1978년까지 물가는 평균 9%대를 기록했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연준은 금리를 21.5%까지 올려야 했다.

지난 7월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나오자 “연준은 더 이상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일시적인 물가 흐름에 따라 금리를 변경해 경기침체가 온 예전과 달리, 물가가 확실히 잡히기 전까진 다소 높은 금리를 지속해 경기침체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 ◆ 물가 둔화 속도, 예상보다 더딜 듯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은 “(유가인상 등) 모든 영향을 평가하고 변수들을 감안하려 하고 있다”면서도 “궁극적으로 현 상황에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워낙 많아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국제유가다. 지난 19일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

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장중 전장보다 1.1% 오른 배럴당 95.47달러에 거래돼 작년 11월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5달러선을 돌파했다.

파월 연준의장은 “에너지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지출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소비자기대심리,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가 상승할 수 있다”며 “고유가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보고 리스크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파업상황도 변수다. UAW는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공장에서 노조역사상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의 파업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과거를 돌아보면 파업의 경우 생산량, 인플레이션, 고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얼마나(파업이) 지속되느냐, 얼마나 손실을 메꿀 수 있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다음 회의에서 데이터를 통해 거시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 실손보험이 있으면 돈이 없다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장윤정

### 병원비든든내의료비보장보험

점점 쌓이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질병 구분 없이 쉽고 간편하게 돌려받고 든든한 내일을 만드세요

※ 요양병원, 정신병원 진료비 제외 ※ 비급여 제외

#### 1년간 들어간 본인부담금 보장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동의 해로 보험금 지급

(연간 총 급여의 10% 중 본인부담금 기준)

질병치료 OK  
입원  
상해치료 OK  
통원

#### 매년 계약해당일에 연간한도 리필

연간한도 리필

연간한도 최대 1천만원

계약일 (23.7.1)      계약해당일 (24.7.1)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시 주계약 보험료 할인

보험계약 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의사 확인

최초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보험료 5% 할인 (최초계약 납입기간 동안 적용)

보험가입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 이 계약은 2년마다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됩니다. 다만,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 90세를 초과하는 경우 100세 만기 순수보장료로 최종 갱신됩니다. ※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증가, 적용보장금액(직접의료, 전문의료, 계약재검역 및 계약갱신비용) 등의 변동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변동(변액,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일반보장금(직접의료)은 보험금으로 받은 금액과 동일하며, 계약갱신 시 갱신비용을 납부하여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 전월말 이후에 갱신비용을 납부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만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갱신 시 갱신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이 계약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만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갱신 시 갱신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이 계약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동안만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갱신 시 갱신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 해당상품은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적금 상품과 다릅니다.

## 한미, 금리격차 2.25%p 예상 “금융시장 영향 주시할 것”

한은, 시장상황 점검회의 개최  
美 긴축기조 장기화 가능성 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나라와의 금리격차는 2%포인트(p)를 유지하게 됐다. 다만, 오는 11월과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베이비스텝(0.25%p 인상)을 단행할 경우 금리격차는 2.25%p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은행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FOMC의 금리동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유상대 부총재는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됐지만, 올해 중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고 있다”며 “내년말 정책금리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긴축기조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물가안정을 위해선 한차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8월말 기준 3.4%다. 지난해 말 5.0%에서 3월 4.2%까지 떨어진 소비자물가는 7월 2.3%대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하고 있다. 공공요금과 국제유가 등이 상승한 영향이다. 지난해 보다 둔화되고 있지만, 목표치(2%)를 상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최종금리수준을 3.75%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공동취재단

지 열어 둔 상황이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8월 “미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졌기 FOMC 회의에서 미국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오래갈지에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미국의 금리수준이 높고 오래 지속되면, 환율 등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1337.30원으로 전일보다 10.30원(0.7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금리인상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고금리가 지속되며 부동산프로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발표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록에서 한 위원은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본격 회복 국면에 미치지 못하고, 가계부채는 증가 추세에 있다”며 “금융시장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 조정 방향 및 크기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유리 기자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 2023년도 보이스피싱 예방 능력 시험 신한은행 지켜요 영역

제2교시

1. 다음 중 계좌 이체 시 혹시 모를 피싱을 예방하는 신한은행의 보안 서비스는?

- ① 간편이체 서비스
- ② 즉시이체 서비스
- ③ **지연이체 서비스**
- ④ **이체정지 서비스**

2. 각 문항을 보고 OX를 맞춰보세요

- ① 문자(카톡)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해서 확인한다 ( ~~X~~ )
- ② **정부기관(금감원)이라며 이체를 요구해도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 ( O )
- ③ 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급하게 3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문자가 와서 바로 보내주었다 ( ~~X~~ )
- ④ **계좌번호 유출만으로는 피싱에 당할 일 없다** ( ~~X~~ )

3. 가족들만 알 수 있는 암호를 미리 정해 가족 사칭 보이스피싱에 대응하는 방법을 무엇이라 하는가?

[ ~~피는 물보다 진하다..?~~ ]  
**우리 가족 암호 만들기**

**신한은행  
'지켜요'에서  
보안 점검이  
시급해 보임!**



**지금 보안점수  
확인하고  
런칭 이벤트  
참여하기**

이벤트 기간: 23.9.6~23.9.30



**보이스피싱 예방 플랫폼 신한은행 '지켜요'에서 보안 점검을 통해  
보안점수도 올리고 피싱 범죄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지켜보세요**

SOL 보안 서비스 이용

피싱 문자 사례 구독

보이스피싱 정보 공유

**보이스피싱 피해자 300억 지원 및 예방사업을 금융감독원,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합니다**

대상 : 피해자 중 취약계층 우선 선별 지원(전체 은행 고객 대상)  
금액 : 300억 (연간 100억 원씩, 3년간 지원)

상세내용 : -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비 지원  
-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및 보험 제공

■ 이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8000)에 문의 바랍니다. ■ 준법감사인 사전심사필 제2023-14203-1호(2023.09.11~2024.09.10)

# 민주당, 최소 39명 이탈표... 총선 앞두고 '분당' 수순 밟나

지난 2월 체포동의안 결과와 유사  
방탄정당 이미지 해소 계기 될 것  
이 대표 단식에 기일 연기 여부 관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민주당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친명(친 이재명계) 대 비명(비 이재명계)' 간 계파분열은 물론, '분당'의 위기까지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더군다나, 비명계에서 29명 이상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계산돼 당 분열 수순을 밟을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무효와 기권표를 합산하면 39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표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는 이날 입원 중인 이 대표를 제외하고 민주당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당초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장기 단식을 이어오자 당내에서도 동정론이 일어나면서 부결에 힘이 실렸다. 민주당은 재적 298석 중 167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 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반대표는 민주당 의석수에 크게 못 미치는 136표에 그쳤다.

이날 표결 결과는 지난 2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와 유사하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최소 30명이 넘는 대규모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면서 당내 내홍으로 이어진 바 있다.

이 대표가 전날 부결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 역효과를 불러온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

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시켜 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장기간 단식으로 병원에 누워있는 이 대표가 부결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온 이유에 대해 향후 정치적 입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또한 비이재명계가 사실상 무더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이면서 계파 갈등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민주당은 노웅래 의원, 이 대표, 자당 출신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을 연달아 부결시키며 고착화된 '방탄 정당' 이미지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 구속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다. 다만, 장기 단식을 이어온

이 대표이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체포해야 하는 이유를 장시간 설명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한 장관의 제안 설명 전,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검찰수사의 부당성에 대해 강변했으며 이후 제안설명에 나선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범죄 사실 요지를 설명한 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 읽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여기가 재판장인가", "법무부장관이 검사인가"라며 거세게 항의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이에 맞서 고성을 지르며 한 장관의 발언을 복돋기도 했다.

의원들의 항의로 한 장관이 발언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의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토론하는 자리 아니다. 국회법 따라 제안설명 할 의무와 책임 있다. 법무부 장관은 피의 사실공포의 우려 있으니 요약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尹 "글로벌 격차 해소해 韓 위상 강화"... 북러 군사거래엔 '경고'

尹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  
ODA 예산안 40% 이상 등 확대  
부산엑스포 유치 의지 다져

윤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글로벌 격차 해소·북한-러시아 무기 거래 비판·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등을 주제로 각국 정상들에게 기조연설을 한 데 이어, 11개국과 릴레이 회담을 하며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연합 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며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해나간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대한민국의 공적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개발원조(ODA)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로 공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 양국의 무기거래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 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엑스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

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엑스포 유치에 힘을 보탰다.

연설 후 윤 대통령은 스위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키르기스스탄, 모리타니아, 콜롬비아, 헝가리, 이스라엘, 태국, 불가리아, 그리스, 에스와티니 정상들을 연달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이들 정상들을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미국 순방 3일차를 맞은 윤 대통령은 총 28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했는데, 유럽 10개국,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아메리카 4개국을 정상들을

만났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뉴욕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은 내용과 형식 등 치밀하게 검토한 전략에 따라 추진된 것"이라며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양자회담 상대 국가를 선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하순으로 예정된 세계박람회 총회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이런 대면 양자회담을 통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하고 의중을 확인하면서 노출해 나가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 판단했다"고도 했다. 김 차장은 "부산 엑스포를 매개로 협력관계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나라들로 선별했고, 오찬 만찬을 할지 등 최대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만남의 형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박태홍 기자

## 시대전환 조정훈, 국민의힘 입당... 외연확장 신호탄

김기현 "연대·포용 실천"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했던 시대전환의 대표 조정훈 의원을 영입하면서 외연확장의 신호탄을 쏘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곰달래문화복지센터 강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 전에 동행서약식을 열고 조 의원의 합류를 축하했다.

전날(20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장으로 있었던 김현준 전 사장과 고기철 전 제주경찰청장,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박영춘 전 SK그룹(수펙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개그맨 출신 우과 성향 유튜버 김영민 씨를 영입한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시작이 다르고 출발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곳을 지향해 나간다면 보다 넓게 포용하고 두텁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정치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가 말의 잔치라고 비칠 정도로 공허한 말들이 무성한데, 오늘은 시대전환이 국

민의힘과 합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자체로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연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좋은 인재를 모시는 것은 입당이나 합당이나 이런 절차적 문제를 넘어서 더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수렴하고 또 국민의힘이 약속드린 정책을 잘 이행하기 위해 동력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 인청특위, 이균용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25일 임명 동의 절차 열릴 예정  
野 "의혹 해소 안 돼... 자질 의문"

국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가 21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만나 논의를 한 결과,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절차는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그동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사법정의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적극 의견을 냈다.

반면, 야당 측 인청특위 위원들은 보고서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았고, 이에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박태홍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 품격 있는 인생 그문이 열립니다

삶의 균형은, 삶의 안정감은  
늘 준비하고, 미리 지키는 것  
당신 삶의 품격을 지켜나갈  
준비된 보임을 전합니다

품격 있는 삶을 위한 시작

## 삼성 고(高)품격 인생보장보험

### [가입시 반드시 알아두실 사항]

※삼성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받으신 후에 가입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 전에 해당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시에는 충분한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지급횟수, 한도, 보험금 감액지급내용, 보장개시일, 중복가입시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약관에서 정한 질병구분, 일반 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제외' 등 주요 지급제한사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준법감시필 23-1123 (브랜드광고파트, 2023.5.31~2024.5.30)] [생명보험협회심의필 제2023-04240호 (2023.9.12~2024.9.11)]

# 지금도 높은데... 저축은행, 예보료율 인상 가능성에 '난색'

## 카드 News

**KB국민카드, 명절계획 설문조사 명절음식 준비 68% 용돈·선물계획 91%**

KB국민카드가 고객패널인 '이지토커'를 대상으로 명절 계획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부모님 용돈 평균 10만~30만원**

KB국민카드가 '황금 연휴'를 앞두고 일정, 선물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석 연휴 기간 응답자의 64%는 가족과 친척집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묘와 차례 등을 지내는 응답자는 45%다. 휴식 및 해외여행은 각각 40%, 23%를 차지했다.

명절 음식을 직접 준비하는 가정은 68%며 시중에 판매하는 음식 구매하겠다는 응답자는 80%로 집계됐다. 음식을 준비하는 이유로는 '추석 차례 상차림을 위해서'는 39%, '성묘를 가기 위해서'가 6%다.

추석을 맞이해 용돈이나 선물 준비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91%다. 이 중 용돈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78%로 선물인 43%보다 높게 나타났다. 74%의 응답자가 10~30만원 내로 용돈을 준비했다.

**신한카드**

**스노보드 국대 선수 이채운·최가온 후원**

신한카드가 대한민국 스노보드 대표 선수들의 금메달을 응원한다.

◆ **"국민들에게 행복 선사할 것"**

신한카드는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채운, 최가온 선수를 후원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채운 선수는 2006년생이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국가대표로 지난 2022년 제 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표팀으로 선발됐다.

최가온 선수는 2008년생이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 종목 국가대표로 2022년 FIS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1위를 차지했다.

**현대카드**

**시스템 고도화 위해 30일 일부 결제 중지**

현대카드가 시스템 강화를 위해 홈페이지 및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 **30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 착수**

현대카드는 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오는 30일 자정을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 일부 결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승인 시스템을 일시 중단한다. 모든 온라인 결제, 앱카드 결제, 간편결제 및 오프라인 결제 이용을 제한한다. 단, 오프라인 가맹점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는 200만원 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김정선 기사

저축은행 예보료율 0.4% 업계 최대 7월기준 0.1%p 오르면 1171억 부담

예금자보호한도 따라 조정 불가피 한도액 수요 낮아 소폭조정 예상

저축은행권이 예금보험료율(예보료율) 확대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예보료율이란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을 대비해 쌓아놓은 일종의 보험금이다. 저축은행은 금융사가운데 가장 높은 예보료율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부담이 가중된다는 입장이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다. 예금주가 5000만원을 예금하면 저축은행은 20만원을 예보료율로 지급한다. 저축은행 다음으로 예보료율 많이 내는 곳은 보험사와 금융투자사, 종합금융회사다. 0.15%를 부담한다. 은행권은 0.08%를 지급해 업계에서 가장 낮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예보료율 변동 가능성을 두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이 예보료율 인상 카드를 빼들 우려 때문이다. 지난 7월 저축은행이 조달한자금은 117조1964억원이다. 0.1%



예금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으로 저축은행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사옥. /뉴스시스

포인트(p)만 오르더라도 1171억원을 더 부담한다. 올해 업권에 걸쳐 수익성 반등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불필요한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다.

저축은행권에서는 예보료율이 높아지면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고금리 예금 등을 출시하기 어려우며 대출금리 인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금자보호 한도와 예보료율이 함께 상승한다면 현행 유지가 낫다는 의견이다.

저축은행권은 그간 꾸준히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한 바 있다. 지난 2011년 저

축은행 사태 후 예보료율이 0.05%p 오른 뒤 단 한차례의 조정안도 나오지 않았다. 유동성과 건전성 모두 금융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수치를 초과하고 있는 만큼 조정안을 논의할 여지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뿐 아니라 예보기금을 내는 모든 금융사의 관심일 것"이라며 "사실상 업권에서 제안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만큼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예보 측은 예금자보호 한도에 따른 예보료율 조정은 불가피하던 의견이다. 예보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목표기

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예금자보호 한도 상황과 비례해 예보료율을 올릴지는 확실치 않다. 예보료율은 다수의 예금주가 분포한 예금액 구간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이다.

예보 측에 따르면 현재 전 금융권에 걸쳐 상당수의 예금주가 예치한 돈은 5000만원 미만이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도 조정된 한도액을 맡길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결과적으로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예보료율이 0.8%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예보료율은 두고 금융사와 조율할 수 없다는 의견도 표명했다. 예보료율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 특정 업권의 편의를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료율은 다수의 예금주가 분포한 금액대에 따라 결정한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늘어나도 1억원을 예치할 예금주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보료율도 소폭 조정엔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선 기사 kimsan119@metroseoul.co.kr

**<해외주식형펀드 누적수익률 톱 10>**

8월31일 기준, 총자산규모30조 이상 생보사, 단위 %

보험사명	펀드명	수익률
미래에셋생명	아시아주식형	204.77
미래에셋생명	글로벌성장주식형	195.96
미래에셋생명	글로벌베이지스주식형	192.89
미래에셋생명	해외성장형	190.27
삼성생명	미국블루칩인덱스주식형	174.74
미래에셋생명	선진마켓주식형	171.74
미래에셋생명	친디아주식형	141.72
삼성생명	더블유인덱스주식형	133.14
삼성생명	더블유인덱스주식형	127.93
신한라이프	미국주식형II	123.77

##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누적수익률 최고 204%

### Advertorial Corner

올 1분기 펀드 운용 호실적 거둬 수익률 상위 10개 중 5~9개 차지

미래에셋생명이 올 1분기 펀드 운용에서 호실적을 거뒀다.

미래에셋생명은 자사펀드가 해외투자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등 전 부문에서 누적 수익률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생명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부문별 누적 수익률 상위 10개 펀드들 중 5~9

개가 미래에셋생명 펀드다. '아시아주식형 펀드'는 인도 등 아시아지역 내 성장 잠재력을 지닌 국가에 투자한다. 누적수익률 204.77%를 기록했다.

'글로벌 컨슈머 섹터 주식안정 성장 자산 배분형 펀드'는 해외주식혼합형 펀드 중 기간수익률 18.22%, 누적수익률 102.73%로 1위를 기록했다. 세계 브랜드, 혁신 기술의 발전, 신흥국의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 수혜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한다.

강점은 포트폴리오다. 변액보험자산의 75%를 해외자산에 투자한다. 평균

15%선에 머물고 있는 업계 평균 해외투자 수익률 대비 앞서나간다는 설명이다. 총 110개의 변액펀드를 미국, 중국, 인도, 베트남 등 해외 국가뿐만 아니라 인덱스, 글로벌 반도체, 헬스케어, 컨슈머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 중이다.

올해 변액보험 적립금은 지난해 대비 8500억원 증가했다. 해외 분산투자 원칙, 중장기 해외 자산배분 전략 등을 통해 변동성이 큰 상황에도 'MVP 60 펀드'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 설정 이후 누적수익률 57.64%를 기록했다.

/김정선 기사

## "투심 살려라"... 가상자산거래소, 반감기 대비 서비스개편 분주

코인원 '빠른주문', '호가창' 탑재 코빗 '패스워드리스'로 지문 접속 업비트 '실현실' 통해 손익 보기 빗썸 거래데이터 분석 '인사이트'

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이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기 위해 서비스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침체되어 있는 시장 분위기 전환과 내년 반감기를 앞두고 고객 유입을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21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2100만원)대비 73.8% 상승해 365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연초대비 상승률만 놓고 보면 가파를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해 4월(5700만원)과 비교하면 56.1% 하락한 상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인상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준 것이다.

암호화폐의 경우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통화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에 국내가상자산거래소들은 위축된 투심을 개선하기 위해 보안과 서비스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코인원은 지난 20일 코인원 애플리케이션(앱)에 '빠른 주문'과 앱 '호가창' 주문 기능을 새롭게 선보였다.

신설된 '빠른 주문'은 자주 사용하는 주문 조건을 모아 선택 한 번으로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이다. 거래 시 주문 방식과 수량, 금액 등을 설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호가창에서는 즉시 주문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코빗은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비밀번호가 필요 없는 '패스워드리스' 방식으로 개편했다.

기존 이메일 인증 방식이 번거로움이 있어 개선한 조치로 별도 프로그램이나 앱 설치 없이 본인인증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쓰지 않고 웹에서는 QR코드 스캔, 휴대전화 앱에서는 고객이 설정한 6자리 간편비밀번호 또는 페이스 아이디, 지문으로 접속 가능하다.

업비트는 '실현실'이라는 기능을 추가했다. 실현실을 통해 '투자손익 보기'라는 서비스를 출시해 원하는 기간의 누적 수익률, 평균 투자 금액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투자손익 보기는 업비트 이용자가 가장 많은 출시를 요청한 기능으로 3가지 수익률(▲단순수익률 ▲시간가중수익률 ▲금액가중수익률)을 지원한다.

빗썸 역시 매매 동향과 다양한 투자 지표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거래데이터 분석 서비스 페이지 '인사이트'를 선보였다. 회원들의 투자 데이터를 분석해 투자 패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최초의 소

셜 트레이딩 서비스다.

빗썸은 하반기 중 서비스 개편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처럼 서비스 개편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크립토윈터 극복과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장을 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오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가치가 상승한다. 전체 발행량이 2100만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은 공급을 줄여 가치를 높이도록 설계됐다.

국내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우선적으로 고객 편의성 강화를 목표로 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거래소들의 서비스 개편은 반감기를 앞두고 선제적으로 서비스 개편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사 lsy2665@

# 애플, 환율정책 들쭉날쭉... 韓 '아이폰' 가격동결 효과 미미

韓 아이폰15 기본모델 125만원  
美 비교시 18만원 가량 더 비싸  
소비자 불만에도 긍정적 수요 전망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5 시리즈에 '혁신'이 없다는 반응과 달리 아이폰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분위기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1·2차 발매국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으며 가격 동결에도 별 이득을 얻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애플의 정책을 지적하는 소비자들의 불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신제품 출시 전 나왔던 부정적인 전망과는 달리 아이폰15의 사전 예약이 공급량을 웃돌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웨트부시 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아이폰15 시리즈 사전 주문량은 작년 같은 기간 아이폰14 시리즈보다 약 10~12% 증가했으며 가장 고가인 아이폰15 프로맥스 모델은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중이다.



애플 스마트폰 시리즈 아이폰15가 공개된 지난 13일 서울 중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 아이폰15 사전예약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시스

특히 자국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금지령'까지 내린 중국 시장에 대한 판매 부진 우려도 사전 예약의 인기로 힘입어 불식된 상태다.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티몰의 애플스토어에서는 아이폰15 시리즈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 예약 판매 시작 1분 만에 모두 완판되는 저력

을 보여줬다.

한국은 아직 출시일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난 시리즈들처럼 3차 출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는 내달 13일 정도로 출시 예정일을 점치고 있는데 '가격 동결'이라는 결정을 내린 애플이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해당 전략이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다.

애플은 지난해에 아이폰14 출시 당시에도 미국, 중국 출고가만 동결한 바 있다. 그중에서도 한국의 인상폭은 한국이 제일 높았으며 아이폰14의 가격은 한·중·일 3개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비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시장을 두고 '애플의 고가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곳'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아이폰15 시리즈의 미국 발매 가격은 ▲기본 모델 799달러(128GB) ▲플러스 899달러(128GB) ▲프로 999달러(128GB) ▲프로맥스 1199달러(256GB) 등으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제품이 다른 나라보다 한국에서 비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격은 아이폰15 기본 모델이 미화 기준 799달러부터 시작하는데 한국은 125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 외환시장의 21일 원·달러 마감 환율(달러당 1340.5원)을 적용하면 799달러는 107만1059

원이다. 한국이 18만원 정도 더 비싸게 판매되는 셈이다.

한국 시장의 불만과 별개로 애플의 주가는 소폭 상승했으며 긍정적인 수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를 통해 "리드타임을 기반으로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는 것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화웨이와의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강력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고무됐다"고 전했다.

긍정적인 수요 전망에 애플의 주가 또한 소폭 상승하며 아이폰15 시리즈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이폰15 프로와 프로맥스의 '리드타임(Lead time)'이 8주 이상까지 늘어난 상황이라는 소식도 전해졌다. 리드타임은 고객의 주문부터 배송까지 소요시간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리드타임이 늘어나면 소비자 수요가 늘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14단계 적용 항공업계 "항공권 더 비싸질 수 있어"

국제유가 지속 상승세  
"공급석 부족 등 이슈 겹쳐"

국제유가 상승세로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세 단계 오른 14단계가 적용된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4단계는 올해 들어 책정된 유류할증료 단계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산유국들의 감산 정책 유지와 중국의 경기부양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을 거듭하고 있어 유류할증료가 상승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90달러

를 넘어서며 연중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항공권 가격도 비싸질 전망이다. 항공권 가격은 ▲기본운임 ▲공항세 ▲유류할증료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86.43센트를 기록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값을 기준으로 삼는데 1갤런(3.785l) 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뉘어 부과되며 그 이하일 땐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10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는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으로 3만800~22만6800원이다. 9월 유류할증료는 2만800~16만3800원이었다. 아시아나항공도 9월 2만3300~13만4600원에서 10월 3만2000~17만7100원으로 조정된다.

결국 유류할증료의 증가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항공권 비용은 크게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가 오를 거라는 예상을 했었다"며 "유가 상승과 공급석 부족 등의 이슈로 항공권 값이 더 비싸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금호리조트  
추석 연휴 이벤트 다채

금호리조트가 전국 4개 콘도(통영·화순·설악·제주)와 아산스파포레는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이벤트를 개최한다.

금호리조트는 ▲우리 가족 그리기 대회 ▲전통 놀이 미션 체험 ▲SNS 퀴즈 이벤트 등 3가지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 가족 그리기 대회'는 여행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로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며, '즐거운 가족 여행'을 테마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린 뒤 퇴실 전까지 프린트에 제출하면 된다.

/허정윤 기자

혼다, '올 뉴 CR-V 하이브리드' 출시

4WD 투어링 단일 트림... 5590만원

혼다의 새로운 하이브리드 SUV가 국내 도로를 달린다.

혼다코리아는 21일 올 뉴 CR-V 하이브리드를 공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올 뉴 CR-V 하이브리드는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한다. 2L 직분사 앳킨슨 엔진에 E-CVT를 조합한 새로운 2모터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최고출력 147마력에 최대토크 18.6kg·m을 낸다. 모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다양한 주행 모드를 사용할 수 있다. 처음으로 전체 우레탄 커버와 소음진동 흡음재를 채용해 더 정숙해졌다.

크기도 커졌다. 전장과 휠베이스를 늘리면서 새로운 패키지 설계를 통해 2열 레그룸을 15mm 늘리고 8단계 조절



올 뉴 CR-V 하이브리드 /혼다코리아

리클라이닝 시트를 제공, 최대 2166L 적재 공간도 제공한다. 전면 직사각형 글라스 디자인과 A필러 및 후드 형상 최적화로 운전자 시야도 확보했다.

국내에는 4WD 투어링 단일 트림으로 5590만원에 판매한다. 5개 외장 색상을 선택할 수 있다. 전국 혼다 딜러를 통해 전시하고, 혼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계약할 수 있다.

/김재웅 기자

로터스, '엘레트라' 공개... 사전예약 접수

순수전기 하이퍼카... 최고출력 918마력

영국 하이퍼 전동화 SUV가 국내에 상륙한다.

로터스자동차코리아는 21일 서울 성수동 피치스 도원에서 엘레트라를 공개하고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엘레트라는 로터스 첫 SUV로, 순수전기 하이퍼카로 개발됐다. 레이싱에서 이름을 알린 로터스의 기술력을 녹여냈다.

엘레트라 R은 최고출력이 918마력에 달한다. 112kW 용량 리튬이온 배터리로, 350kW 출력 급속 충전을 지원한다.

그러면서도 첨단 ADAS를 지원, KEF레퍼런스 오디오 시스템으로 23개 스피커를 통해 강력한 사운드도 낸다.

로터스는 28일까지 엘레트라를 전시하고, 공식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국내 출시를 기념해 사전 예약 선착순 200명에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HX 헤드폰도 증정할 예정이다.



하이퍼 SUV '엘레트라' /로터스자동차코리아

로터스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로터스 최초의 하이퍼 SUV 엘레트라는 로터스가 경량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고성능 럭셔리 전기차 브랜드로 전환하는 시대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모델"이라며, "특별한 의미가 담긴 엘레트라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을 전개하고 더 많은 고객을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로터스자동차코리아는 코오롱모빌리티그룹이 설립했으며, 하반기 서울 도산대로에 플래그십 쇼룸을 오픈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AVEL, 전력 중개사업 본격 추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등록

LG에너지솔루션의 재생에너지 전력망 통합관리 전문 사내독립기업 AVEL(에이벨)이 본격적인 전력 중개사업 전개에 나선다.

AVEL(Add Value to Energy Label)은 8월 한달 간 진행된 한국전력거래소 주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를 위한 등록시험에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발전량 예측 제도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예측해 정확도에 따라 정산금을 받는 제도다. 등록시험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오차율 10% 이하여야 통과 가능하다.

또한 이번 시험에서 AVEL은 국내 최초로 제주도 '태양광-풍력 혼합자원' 등록에도 최종 합격했다. LG에너지솔루션에 따르면 발전량 예측이 까다로운 풍력발전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AVEL은 고도화된 발전량 예측 기술을 바탕으로 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AVEL은 내년 초부터 제주에서 시행 예정인 재생에너지 실시간 입찰 시범사업도 준비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무인·자동화로 그리는 '미래 현장'... 위험 지역서도 '거뜰'

## 프로

### HD 현대사이트솔루션

Concept-X2 도저, 그레이딩 시연 인지 센서로 경로생성·주행제어 수행 사람·장비 등 장애물 자동으로 인지

건설 현장에서 안전은 언제나 최우선 과제다. 건설 현장은 안전사고의 빈도가 높은 장소 중 하나로 많은 인명피해와 손실이 발생해왔다. 더욱이 숙련된 건설 노동자의 감소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기계 산업은 안전 환경 조성 및 동시 생산성을 높일 방법으로 무인·자동화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지난 20일 충청남도 보령에 위치한 HD현대인프라코어 보령 PG(성능시험장)에서 무인 건설 시스템 Concept-X2의 성공적인 시연을 선보이며 무인 건설 시스템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의 무인·자동화 기술을 보며 HD현대사이트솔루션이 그리는 건설 현장의 미래 모습을 체감해 봤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먼저 'Concept-X2 도저' 그레이딩 시연을 펼쳤다. 도저는 건설 현장에서 사토의 절삭과 운반을 동시에 하는 기계이다. Con



지난 20일 HD현대인프라코어 보령 PG에서 개최된 Concept-X2 시연회에 무인 굴착기와 무인 도저가 정차돼 있다.



태블릿을 이용해 'AR 가이드' 애플리케이션 사용을 선보이고 있다. /차현정 기자

cept-X2 도저는 적외선 카메라, 레이더 등이 탑재돼 인지 센서를 기반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시간 경로 생성 및 주행 제어를 수행한다. 도저는 자율주행 시 안전을 위해 설정된 펜스 내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며 펜스 경계를 벗어나면 자동으로 정지한다. 또한 도저에는 액티브 세이프티 기능이 있어 후면에 위치한 레이더를 통해 사람, 장비 등의 장애물을 자동으로 인지해 자동 정지함으로써 충돌을 방지한다.

도저 콘솔 원격 제어 체험도 진행됐다. 콘솔 원격 제어는 사람이 진입하기 어려운 위험 지역에서 작업하기에 적합하다. 콘솔용 원격 제어기는 2.4GHz, 444MHz 대역의 무선 통신 구간 이원화를 통해 통신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오픈된 공간에서 약 500m까지 통신이 가능하며 하루 8시간 표준 작업 시 3일 연속 사용할 수 있는 교체형 리튬 이온 배터리를 탑재했다.

'Concept-X2 굴착기'의 시연은 기상악화로 인해 실내에서 영상을 통해 실시간 작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굴착기는 폭우가 내리는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해 탁월한 성능을 증명했다. 굴착기는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거나 깎을 때 사용되는 기계다. Concept-X2 굴착기는 무인 제어 알고리즘을 확장해 버킷을 다양한 각도로 기울이거나 회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틸트로테이터 기능을 장착한 상태에서도 자동화가 가능하다. 또 숙련도가 높은 작업자의 데이터를 입혀둔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

최적의 굴착 궤적을 생성해 무인화·자동화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작업 속도가 13% 향상돼 작업 시간 단축 및 연료 소모량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2018년에 무인 굴착기가 어느 정도의 거리까지 원격을 할 수 있는지 테스트를 진행했다"며 "한국 인천에서 8800km 떨어진 독일 뮌헨에서 굴착기를 조종할 수 있는 시연을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AR 가이드'를 선보였다. AR 가이드는 AR 기술을 통해 직관적으로 장비 상태를 보며 고장 진단과 수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AR 가이드 앱을 이용하면 AR 기술을 활용해 3D 모델링을 불러와 마치 건

설 기계가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시각화할 수 있다. 또 AR 가이드는 해외처럼 통신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장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설 장비에 문제가 생기면 에러 코드를 띄어주어 바로 확인하고 문제 원인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AR 가이드는 융합 시스템, 전장 시스템, 엔진 시스템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 주요 부품들을 리스트업 했다. 이를 통해 부품의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 수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 관계자는 "Concept-X2는 조이스틱으로 장비를 조종하는 단계인 'SATGE 1'부터 무인으로 모든 현장의 무인장비, 유인장비의 작업 현황과 고장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현장을 총관리할 수 있는 단계 'STAGE 5'까지의 요소를 조합해 상품화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동욱 HD현대사이트솔루션 CEO는 "세상의 변화에 따라 HD현대의 건설기계도 변화되어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경제성·경쟁력 다 갖춘 '전기차 라인업' 구축

KG모빌리티 미래발전 전략 간담회 26년까지 총 32만대 판매 목표 해외 판매 네트워크 강화 방침

KG모빌리티가 2025년 이후 고성능 하이브리드 SUV 등 친환경차 라인업을 확대하며 판매량 확대에 집중한다.

KG모빌리티는 2026년까지 내수 12만대, 수출 10만대, 반조립제품(CKD) 10만대 총 32만대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사명을 바꿔 새롭게 출범한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미래 발전 전략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이같은 목표실적과 함께 전동화 전환 계획을 설명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완성차 생산 22만대와 KD(반제품이나 부품을 수출해 현지에서 차량을 조립) 10만대를 포함해 총 32만대의 판매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KG 모빌리티는 이를 위해 글로벌 시장의 지역별 거점을 구축해 해외 판매 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곽재선 KG 모빌리티 회장이 21일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미래 발전 전략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근 토레스 EVX를 출시한 KG모빌리티는 차기 전동화 전략으로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업체와 협력하는 전략으로 막대한 비용 및 긴 개발기간이 소요되는 리스크를 줄여 경제성·상품 경쟁력을 모두 갖춘 전기차 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 부문에서도 자체 기술을 확보해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배터리 팩 제조 기술을 내년까지 내재화해 단순 조립을 넘어 셀 투 바디(cell to body·차체와 배터리를 통합하는 기술)를 달성하고, 통합 열관리 시스템·빅데이터를 통한 배터리 관리 시스템, 전기차 무선 충전 서비스를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속도가 둔화하는 외부 환경에 대비해 KG모빌리티는 고성능·고효율 하이브리드 차량도 개발 중이다. 2025년 양산을 목표로 엔진 효율을 43% 이상 개선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할 계획이다.

에디슨모터스를 필두로 상용차 시장 확대에도 힘을 계획이다. 인수 작업을 마치는 대로 회사를 정상화한 뒤 동남아시아 시장에 진출한다는 구상이다. 수출 10만대를 달성하기 위한 해외 판매 네트워크 다변화, 신시장 개척도 이 agenda. 특히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내년부터 독일에서 직영 판매법인 설립하고 본격 운영한다.

/양성운 기자 ysw@

## KT, 이통3사 최초 납품대금 연동제 가입

파트너사부터 2차 수탁사까지 확대

KT는 오는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대비해 국내 이동통신3사 중 최초로 파트너사부터 2차 수탁사까지 가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제조원가 상승 시 그만큼의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해 적정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현 정부의 핵심상생협력 정책이다.

KT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광화문 사옥에서 합동 가입식을 열었다. KT그룹사-파트너사, KT파트너사-2차수탁사가 참여했다. KT커머스, HCN, KT엠모바일과 함께 그룹사의 파트너사인 동일전선, 광명통신, 이노브가 참여했다. KT파트너사에서는 가온그룹, 머큐리, 다보링크와 2차수탁사인 드림전자, 스피맥스, 대성에이치티엠이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를 총



조훈 KT SCM전략실장(전무·왼쪽)과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벤처부는 KT에서 준비한 합동 가입이 2차 수탁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조기 확산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KT는 파트너사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중진공,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14001 인증 획득

이행조직 체계 등 두루 갖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14001' 인증을 취득했다.

21일 중진공에 따르면 'ISO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환경경영전략과 이행조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춘 기업·기관을 인증한다.

한국경영인증원이 진행하는 심사에

서 중진공은 K-ESG 가이드라인(산업통장자원부)을 기반으로 기관 맞춤형 환경 성과지표 개발과 환경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김승호 기자 bada@

## SKT, 다회용 컵 순환 캠페인 '해피해빗'

日 통신사 소프트뱅크와 협력

SK텔레콤은 일본 통신회사 소프트뱅크 주식회사와 협력해 일본 현지에서 다회용 컵 순환 캠페인 '해피해빗'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운영하는 일본 프로야구 팀 휴무장인 후

쿠오카 페이페이 돔 내부 VIP석 '슈퍼박스'에서 오는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양사는 이 기간동안 최대 13경기에서 경기당 약 1000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기존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제공해 일본 야구팬들의 친환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 동참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구남영 기자



MONTES ALPHA

A TOUCH OF GRACE

# 나의 첫 와인 몬테스 알파

NARA  
CELLAR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 수익성 위축?… 주가 상승세에도 ‘증권가 리포트’에 희비

애널리스트들 종목 리포트 영향 커  
롯데손보 ‘고평가’ 의견에 급락세  
공매도 악적 등 비난 받기도 ‘일쭉’

주가 상승세를 기록하던 롯데손해보험의 주가가 증권가의 ‘매가가 고평가’ 의견에 급락세로 들어섰다. 최근 애널리스트들의 ‘매도’ 리포트 회피와 선행매매 논란에도 영향력이 건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일각에서는 자본시장의 구조 자체가 ‘매도’ 리포트를 낼 수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의 주가는 이번 주에만 약 52.0% 폭 등했다. 롯데손해보험은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면서 18일과 19일, 이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20일 오전에도 3245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터치했지만, 증권가에서 매가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하락 전환됐다. 결국 롯데손해보험은 8.86% 급락한 28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설용진 SK증권 연구원은 “언론을 통해 거론되는 예상 매가가 2조7000억에서 3조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더라도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주가가 매각 기대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모멘텀이 소멸되는 구간에서 급격한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SK증권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상장 주요 손보사 밸류에이션(가치평가) 평균과 경영권 프리미엄 약 50~85% 가정을 적용한 롯데손해보험의 대략적인 매각가는



약 1조2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이다.

최근 애널리스트들은 ‘매수’ 리포트에 비해 ‘매도’ 리포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의견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선행매매로 부당이익을 챙긴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신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과거보다 주목도가 낮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여전히 애널리스트들의 종목 리포트는 투자자들의 투심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양새다.

A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기업 내부적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개인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과열 종목의 매도(셀) 리포트 등을 불편해하는 경우도 많다”며 “증권사의 독립성을 고려한다면, 리포트에 대한 애널리스트의 자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내 증권사 35곳의 ‘매도’ 리포트 비중은 전체 리포트의 0.1%에 불과하다. 또한, 에프앤가이드를 살펴보면 올해 나온 레인보우로보틱스 분석 리포트는 2월 작성된 유진투자증권이 유일하고, 광풍을 일으키며 상반기 증시를 주도했던 에코프로 분석 리포트도 비는 리적인 오름세와 함께 똑 끊겼다. 지난

5월 이후 7월에 하나증권에서 나온 ‘매도’ 리포트가 전부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종목임에도 주가 변동성이 높아 증권사들이 분석 리포트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상대적으로 부담감이 덜한 독립리서치 애널리스트들도 매도 리포트에 손을 대는 것은 어렵다. B 독립리서치 애널리스트는 “내부 이해관계를 배제하고도 매도 리포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시선이 좁지 않다”며 “주가 흐름 예측이 어긋났을 때의 손해도 매도 리포트가 더 크고, 들어맞더라도 매도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낮아졌다는 불만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매도 리포트가 부정적인 시그널로 다가오기 때문에 ‘공매도 악적’ 등의 비난을 받게 된다는 부연이다.

한 업계 관계자도 “셀 리포트는 기업, 투자자, 회사 등을 모두 적으로 돌리는 것”이라며 “매도 리포트를 쓸 수 있는 환경적 조건도 안 될 뿐더러 쓰더라도 긍정적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올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전년比 ‘급감’

전년동기 대비 33.8% 감소

올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에 비해 급감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 2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8% 감소한 54조700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42.1% 줄어든 40조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해 14조8000억원을 달성한 공공부문과 대조적이다. 민간올 2분기 계약액 감소폭은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다. 특히 기업규모 50위~100위권 중견중소 건설사의 매출이 반토막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을 여실히 보여줬다.

민간의 수주액이 더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침체 영향이 집중된 건축부

분에 수주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다. 공종별로 토목(산업설비, 조경 포함)은 15조6000억원으로 산업설비 등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10.4% 감소했는데 건축은 40% 감소한 3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규모별로 상위 1~50위 기업은 22조2000억원(-34.5%), 51~100위는 2조3000억원(-57.8%), 101~300위 5조1000억원(-29.7%)을 기록했다. 중견·중소 규모인 50위 밖 건설사의 계약액이 크게 줄어든 이유는 부동산 위기로 분석된다.

계약 규모를 현장 소재지별로 수도권이 2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3%, 비수도권이 30조원으로 24.7% 각각 감소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 서울 아파트 매물 쌓이고 거래량 ‘뚝’

매도인, 매수인 간 희망가격 격차 커

최근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매매 물건이 쌓이고 거래량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이달 기준)은 7만4441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일 매물량(7만1441건)과 비교하면 20일 만에 4.2%(3000건) 증가했다. 규제지역이 해제된 지난 1월 5일(5만1180건)에 비해 45.4%(2만3261건) 증가했다.

특히, 최근 스무달 사이 서울 25개구 전역에서 아파트 매물이 늘었다. 송파구가 8.7%(5407건→5881건)로 가장 많이 늘었다. ▲서대문구 7.7%(2415건→2601건) ▲노원구 6.5%(5003건→5331건) ▲은평구 5.7%(2776건→2936건) ▲마포구 5.7%(2854건→3018건) ▲양천구 5.3%(2920건→3077건) ▲중랑구 5.2%(2098건→2209건) 순이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금을 ‘매도 적기’로 보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매도인과 매수인 간 희망가격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매물은 쌓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

아파트 매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 선행지표인 거래량은 한동안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아파트 거래량(이달 기준)은 3592건으로, 전달(3847건) 대비 6.6%(255건) 감소했다. 월간 매매 건수가 전달 대비 줄어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만이다.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6월(1063건) 이후 계속 1000건을 밑돌았다. 올해 1월(1412건) 네 자릿수로 반등했고, 지난 4월(3186건)부터 3000건 이상 거래량이 유지되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 ‘성장가치주’로 다양화·안정화 잡는다

### 신영자산운용

베일리리포트와 첫 공모펀드 출시  
혁신기업 조기발굴 등 장기성장 노려

가치주 투자로 이름난 신영자산운용이 성장성을 더했다. 테슬라, 엔비디아 등의 초기 투자자로 유명한 영국 자산운용사 베일리리포트와 함께 장기 성장주펀드를 내놨다.

신영자산운용은 베일리리포트의 장기 글로벌 성장주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 상품인 ‘신영 베일리리포트 글로벌그로스펀드’를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영자산운용 허남권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영국대사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성장주를 조기에 발굴해서 장기 투자하는 베일리리포트와는 시장이 아닌 기

업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신영자산운용의 투자철학과 일치한다”며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보면 성장가치주로 다양화, 안정화를 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일리리포트 데이비드 헨더슨 아시아 총괄 파트너 역시 “가치주와 성장주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만 장기적으로 고객에게 수익을 안겨준다는 측면에서 상통한다”고 밝혔다.

베일리리포트는 1908년에 설립됐으며, 초기부터 사회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혁신 기업을 조기 발굴해 장기 투자를 해왔다. 현재 수탁고는 386조원에 달한다.

테슬라 2대 주주로도 알려졌던 베일리리포트는 테슬라에 11년 넘게 초장기로 투자해 8000% 이상의 성과를 냈다. 엔비디아도 7년 이상 투자해 2800%의

수익률을 냈다.

혁신 기업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었던 주요 기반은 학계와 연동한 리서치다. 이를 통해 기존엔 불가능했지만 미래에 가능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에 따른 투자기회는 어디에 있을지를 알 수 있었다. 테슬라 역시 학계와의 협업 과정에서 발굴해낸 기업이다. 투자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전기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베일리리포트 한국대표 임서홍 이사는 “학계와의 협업을 통한 리서치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이해하고자 하는 데에서 시작됐고, 세상의 변화에서 어떤 기업이 더욱 새롭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지 찾는다”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한투증권, 토큰증권 분산원장 인프라 구축

증권형 디지털자산 전환 등 가능

한국투자증권은 업계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발행된 디지털화된 증권을

말한다. 실물증권과 전자증권에 이은 새로운 발행 형태다. 부동산은 물론 선박, 항공기 미술품 등 실물로 존재하는 자산의 권리를 손쉽게 유통화해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전환, 조각 투자가 가능해진다.

한국투자증권을 중심으로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오픈마켓 등이 참여한 토큰증권 협의체 ‘한국투자ST프렌즈’는 지난 5월 발행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개발에 착수했다. 4개월의 노력 끝에 국내 최초로 토큰증권 발행 및 청산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구현한 인프라를 개발하고 시범 발행까지 완료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오피스텔 등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소규모 주택 광고 시 의무적 공개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광고할 때 정액관리비의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동주택 가운데 대단지 아파트만 제출 의무가 있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을 이행하면서 관리비를 폭등시키는 등의 짚수

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원룸·오피스텔 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규성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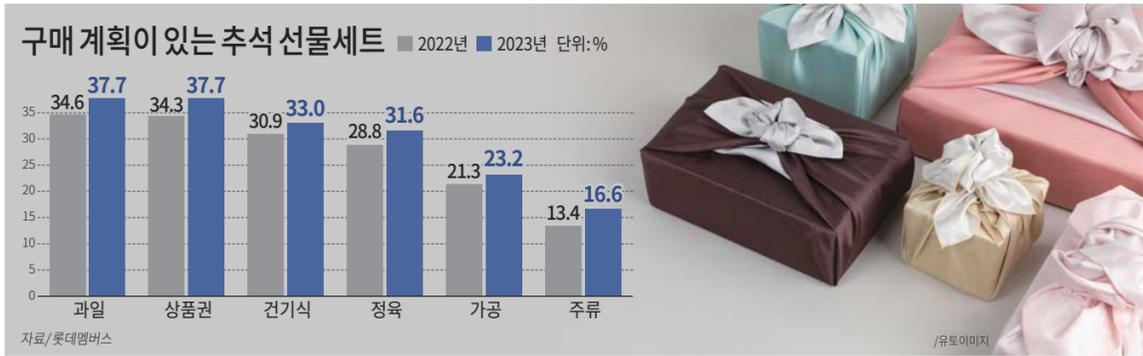
# 올 추석 선물, 실용성 있는 상품권·과일세트가 ‘대세’

롯데멤버스, 선물구매 예정자 설문  
상품권 선택 전년 대비 3.4% 늘어  
건기식 33%, 정육 32% 등 순서  
고려 요소 실용 40%, 안전 22%

올해는 추석 선물로 실용적인 상품권과 과일을 준비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멤버스는 지난달 25일부터 30일까지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선물 구매 계획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추석 구매 예정인 선물(중복응답)로는 상품권(37.7%)과 과일 선물세트(37.7%)가 공동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상품권 종류(중복응답)를 묻자 여전히 지류(69.6%) 응답률이 제일 높았지만 모바일 상품권(57.0%) 응답률도 높았다. 모바일 상품권을 선호도는 20대와 30대가 각각 67.1%, 56.7%로 40대(54.7%), 50대



이상(48.9%)보다 높았다.

뒤를 이어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33.0%), 정육 선물세트(31.6%), 가공식품 선물세트(23.2%), 주류 선물세트(16.6%), 전통식품 선물세트(16.2%), 일상생활용품 선물세트(16.2%), 커피·베이커리 선물세트(12.8%), 수산 선물세트(12.6%), 건조식품 선물세트(11.9%), 위생용품 선물

세트(6.7%) 등 순으로 인기가 높았다.

응답자들은 물가 상승이 이번 명절 선물 금액과 품목, 개수 등에 두루 영향을 끼쳤다고 답했으며, 추석 선물 구매 시 가격 외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는 차례대로 실용성(39.6%), 신뢰성·안전성(22.1%), 고급성(11.8%), 구성의 다양성(9.8%), 패키지 및 포장(8.6%), 친환경성(8.1%) 이라고 응답했다.

롯데멤버스 관계자는 “고물가 시대에 실용성을 고려한 선물이 인기”라며 “이와 관련해 상품권 구매액이 늘고 있다. 작년 추석 대비 높은 선호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롯데멤버스에 따르면, 작년에 진행한 추석 선물 구매 계획 조사 대비 상품권을 선택한 이들이 3.4% 늘었다. 또 롯데유통채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

액이 2020년 대비 지난해 1.4배 가량 늘어 해가 갈수록 상품권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 역시 확인됐다. 이외 주류(3.2%), 과일(3.1%), 건강기능식품(2.1%), 정육(2.8%), 가공식품(1.9%) 등 선물 구매 의향도 작년 추석 보다 늘었다.

선물 가격대(중복응답)로는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31.0%)’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25.0%)’,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22.6%)’, ‘1만원 이상 3만원 미만(10.0%)’,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7.7%)’이 그 뒤를 이었다.

롯데멤버스 관계자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능축수산물 명절 선물가액 상한선인 30만원 이상을 선택한 응답률은 1%대로 저조했다”고 설명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상의, 尹 ‘무탄소 연합’ 제안에 “적극지원”

윤 대통령, UN총회서 기조연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기업 미래먹거리 새 지평 열어줄 것”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무탄소(Carbon Free) 연합’ 결성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간 기후대응 격차 해소에 의지를 밝혔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원전·수소 등 고효율 무탄

소에너지(CFE) 확산을 위한 전세계 오픈 플랫폼 CF 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CF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개발, 기후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세 분야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해 한국이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에 대해 경제계도 깊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원전, 수소 등 모든 무탄소에너지를 포함하는 무탄소에너지(CFE)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기업에 더 현실적이고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부회장은 “CF연합 이니셔티브를 통해 에너지 분야 민간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들이 글로벌 탄소중립 노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2000만원대 전기차 ‘더 기아 레이 EV’ 출시

주행거리 복합 205km, 도심 233km  
서울시 기준 보조금 총 647만원

국내 자동차 시장에 2000만원대 전기차 출시된다.

기아는 경형 전기차 ‘더 기아 레이 EV’를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레이 EV는 중국 CATL이 공급한 35.2kWh 용량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를 탑재했다. 공기역학 성능을 높이는 배터리 전방 언더커버로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205km, 도심 233km다. 충전시간은 150kW급 급속 충전일 경우 40분, 7kW급 완속 충전은 6시간이다.

동력성능은 최고출력 64.3kW, 최대토크 147Nm다. 가솔린 모델(최고출력 76마력, 최대토크 95.1Nm)보다 나은 주행 성능을 갖췄다.

또 오토홀드를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고 모든 좌석을 접는 ‘폴 플랫’ 기능과 장시간 전기장치 사용이 가능한 유틸리티 모드가 적용됐다.

트림별 가격은 4인승 승용 라이트



더 기아 레이 EV.

2775만원, 에어 2955만원이다. 2인승 밴의 경우 라이트 2745만원, 에어 2795만원이며 1인승 밴은 라이트가 2735만원, 에어가 2780만원이다. 서울시 기준 전기차 국고 보조금 512만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135만원을 더하면 4인승 승용 라이트 트림은 2128만원, 4인승 승용 에어 트림은 2308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레이 EV는 경형 전기차로 분류돼 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가 면제된다. 개인·법인 사업자(일반과세자 한정)는 부가세도 환급 받을 수 있는 등 다양한 세제 혜택도 적용된다. /양성운 기자 ysw@

## 팅크웨어, 사고 충격시 차량번호 즉시전송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1’ 출시

팅크웨어가 자율주행 플랫폼 기반의 객체 인식 인공지능(AI) 알고리즘과 딥 러닝 기술을 적용한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1(사진)’을 출시했다.

21일 티ंक웨어에 따르면 ‘아이나비 QXD1’은 자율주행 플랫폼인 암바텔라 CV기반 객체 인식 알고리즘과 스스로 데이터를 조합·분석해 학습하는 딥 러닝 기술 바탕인 ‘아이나비 Vision A.I.’를 탑재한 최첨단 블랙박스다.

‘아이나비 QXD1’에 장착한 ‘아이나비 Vision A.I.’는 주차 녹화 시 차량에 다가오는 사람, 바이크, 자전거 등 객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분석한다. 또한 차량에 대한 실제 위험과 거짓 위험을 판단하고 분석해 필요한 상황만 정확하게 녹화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사고로 충격이 발생하면 인식된 차량 번호와 함께 충격 알림을 스마트폰으로 즉시 전달해 사용자는 정확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능도 ‘아이나비 Vision A.I.’와 접목해 더욱 강화했다. 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해 도로 위 모든 객체를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잠재적 위험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더불어 교통안전 시설물 인식, 속도 위반 및 버스 전용 차로 알림, 우회전 일시정지 등 시시각각 변화하는 도로 환경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운전을 보조한다.

여기에 기존 기능인 ▲차선을 벗어날 경우 알려주는 ‘차선 이탈 감지 시스템(LDWS)’ ▲신호 대기 및 정차 중 앞차가 움직일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앞차 출발 알림(FVSA)’ ▲전방 차량과 안전 거리를 인식해 추돌 위험을 알려주는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FCWS)’ ▲운행 중 신호 대기 상황에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신호 변경 알림(TLCA)’ 기능도 지원한다.

전후방에 QHD(Quad HD) 화질을



답재, 실시간 이미지 신호 프로세서 성능 향상과 새로운 IQ (Image Quality) 테크니컬 튜닝으로 이전 QXD 시리즈 제품보다 낮고 밤, 계절의 변화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도 사고 정보 및 정황에 대해 식별력을 높였다.

이밖에도 ‘아이나비 QXD1’은 ▲실내 온도 감지 및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스스로 감지해 초저전력 주차 모드로 변경하는 ‘초저전력 시스템’ ▲메모리 포맷이 필요 없는 ‘포맷프리 2.0’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해 운전자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김승호 기자 bada@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삼성에 ‘甲질’...브로드컴, 과징금 191억

공정위 “우월지위 이용 계약 강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부당한 장기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로 우리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부품 공급 다원화 전략을 위해 채택한 경쟁사에 대해 ‘중요스러운 경쟁자’로 칭하며 자신과의 장기 거래를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일반적으로 불리한 부품 공급에 관한 장기계약(LTA, Long Term Agreement) 체결을 강제하는 등

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9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브로드컴은 일부 부품에서 경쟁이 시작되자, 2019년 12월부터 삼성전자가 경쟁사업자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고, 장기간 매출을 보장받고자 독점적 부품 공급상황을 이용한 장기계약 체결 전략을 수립해 추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반도체 등 핵심 기반 산업 분야 위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 韓-美, 첨단산업 인력교류 본격화 연구개발, 해외연구자에 전면 개방

韓-美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  
산업부, 6개 협력거점 구축해  
50여 개 공동연구개발 과제 추진  
STEM 분야 청년인력 교류 지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양국의 기업과 연구기관 간 첨단산업 기술협력과 대학생 등 첨단산업 인력교류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내 첨단산업 연구개발 사업이 해외 연구자들에게도 전면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상무부와 양국 첨단산업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21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제2회 한-미 첨단산업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양국 첨단산업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양국의 반도체 협력 방안, 산업기술 안보정책, 청년인력 교류 방안 등을 공유했다.

또 반도체와 이차전지,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미래차, 스마트제조, 로봇, 바이오 등 8대 첨단기술에 대해서는 별도 기술 세미나를 개최해 협력과제 제안과 혁신기업들의 아이디어 피칭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산업부 장영진 1차관,

미 상무부 돈 그레이브 부장관이 참석했으며, 예일대(첨단산업), MassRobotics(로봇), MAKER(첨단제조) 등 미 연구기관들과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과제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장 1차관은 "글로벌 첨단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을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고, 포럼을 통해 발굴된 협력수요 등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양국 첨단기술

협력사업은 미국 등 세계 최고 대학과 연구기관에 6개 협력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과 글로벌 연구기관 간 초격차 급소기술 등 50여개 공동 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청정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컨퍼런스를 비롯해 반도체·배터리 등 STEM 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등 특별교류를 지원하는 청년인력 교류 등을 통해 양국의 공급망·산업 협력과 교류 확대, 공동 연구개발 추진 등 첨단기술 협력을 공고히 해나갈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산업인력Q,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발간

자격Q, 16개 종목 현황·동향 수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21일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16개 종목의 자격시험 응시 현황과 산업 동향이 수록된 국가기술자격 정보집 '자격Q'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사회 주요 이슈와 관련된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분기별로 선정해 종목별 시험 응시목적과 현황, 취득 방법, 우대현황 및 고용 전망 등을 제공한다. 3분기에 공조냉동(4개 종목)과 기계설비(5개 종목), 승강기(3개 종목), 생산자동화(4개 종목) 분야 등 총 16개 종목이 선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16개 종목 필기시험에 연평균 약 5만6400명이 응시했다. 공조냉동기계 산업기사는 2018년 4227명에서 2022년 9698명으로 연평균 23.1% 증가했다. 설비보전기사는 2018년 2122명에서 2022년 5003명으로 연평균 23.9% 증가했다. 또 공단은 2022년도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16개 종목 필기시험 응시

인원 5만7442명의 ▷경제활동 유형 ▷종사 사업체 규모(재직자 한정) ▷성별 ▷연령대 ▷응시목적 등 설문 응답을 분석했다.

응답자 중에는 학생이 42.4%로 가장 많았고 재직자는 36.5%였다. 학생들은 승강기와 기계설비 분야의 자격취득을 선호했으며, 재직자들은 공조냉동과 기계설비 분야였다. 재직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별 비율은 300명 미만 65.4%, 300명 이상 1000명 미만 14.6%, 1000명 이상 20%였다. 응시 인원의 96.8%는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가 32.2%, 10대 25.6%, 30대 13.5% 순으로 청년층 응시율이 높았다. 응시목적은 취업 44%, 자기개발 22.5%, 업무능력향상 13.8% 순이었다.

김영중 이사장 직무대행은 "취업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기계장비설비·설치 분야 자격시험에 많이 응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시성 있는 자격정보로 청년층의 일자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경영특강 실시

노사발전재단, 온라인세미나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대기업 협력을 대상으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평가 지원에 나섰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영공시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공급망 관리의 핵심인 인권과 환경 이슈와 관련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재단은 21일 오후 비대면 방식으로, 서울 본사 영상회의실에서 'ESG 경영실현을 위한 조직 운영전략 온라인세미나'를 개최했다. 해외에 진출했거나 예정인 기업의 인사노무 및 ESG 담당자 100여 명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기존의 '사회적 책임활동'(CSR)과 비교 분석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궁금해하는 사회(S), 지배구조(G) 공시의 구체적 사례를 특강으로 실시했다. 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연우 수석전문위원은 올해 7월 기준, 국내기업의 ESG 공시율은 75.7%(151개 사)로 지난해 55%(111개 사)보다 20%포인트(p)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5년부터 ESG 공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기업 자체적으로 지배구조, 사회공헌 전략을 수립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기업 정책과 운영방침의 수립을 비롯해 단계별 목표 정립을 통한 이행방안 로드맵을 구축하고, 위험요인 관리체계 마련 등의 구체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대환 재단 사무총장은 "글로벌 ESG 이슈의 방아쇠를 당긴 미국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선언의 키워드는 '주주 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이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액, 5년간 541억 달해

멧돼지, 330억 어치 최대 피해  
채소 121억·사과 77억 등 손실  
재해보험에 4.9만여 건 접수

〈야생동물별 피해액〉

(단위: 백만원)

연도	계	멧돼지	고라니	꿩	까치	청설모	오리류	기타
2018	11,767	6,509	2,593	404	1,021	59	394	787
2019	13,746	8,910	2,158	297	1,279	47	140	915
2020	10,622	6,651	1,699	397	613	39	198	1,025
2021	9,349	5,629	1,452	306	814	25	341	782
2022	8,712	5,304	1,171	353	443	32	202	1,207
계	54,196	33,003	9,073	1,757	4,170	202	1,275	4,716

/여기구 의원실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이 매년 1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급금응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액은 541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에 가장 많은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멧돼지(330억3000만원)였고, 이어 고라니(90억7300만원), 까치(41억7000만원), 오리류(12억7500만원), 꿩(17억5700만원), 청설모(2억2000만원) 순이었다.

작물별 피해는 채소 121억8500만

원, 사과 77억3900만원, 벼 67억1700만원, 배 28억2600만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원도(98억6100만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같은 기간 농작물재해보험에 사고접수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는 4만9068건에 달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의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복구비를 지원한다.

어기구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

고 있다"며 "농민들이 피담 흘려 키운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확대, 보상금 현실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9년부터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12억8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지난해까지 총 포획 실적은 1564마리다. /세종=한용수 기자

## 전국 600여 개 동물병원, 추석 연휴도 운영

농식품부, 누리집에 정보 게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 연휴인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반려동물이 갑자기 아프더라도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응급 동물병원'

정보를 누리집에 22일부터 게시한다고 밝혔다.

누리집 상단의 안내창을 누르면 지역별 검색을 통해 동물병원 명칭과 동물병원별 진료 가능 날짜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적으로 600

여개 병원이 연휴 기간 응급 진료에 참여한다.

동물병원 정보는 농식품부 공식 누리집뿐 아니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는 연휴 기간 유실·유기 동물 발생에 대비해 '구조 동물 통합(분실·발견) 신고'도 운영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 韓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 선정

2025년 예정... 28년 만에 개최

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이 20일(미국 동부시간) 한국이 오는 2025년으로 예정된 '제54차 세계 환경의 날' 개최국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지 발표는 뉴욕에 위치한 유엔환경계획 사무소에서 고위급 면담 후 이뤄졌다.

우리나라의 대규모 국제 환경행사 유치는 지난 1997년 6월 서울에서 열린 '제28차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세계환경의날(매년 6월5일)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다짐하기 위해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제정된 국제연합 기념일이다. 각국 주요 인사와 국제기구 대표, 기업 및 전 세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행사로

인정받는다.

환경부는 "2025년 환경의 날 행사는 2024년 하반기 국내 유치가 확정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 다음 해에 개최된다"며 "따라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개최장소 등 세부행사 내용은 향후 유엔환경계획 측과 협의를 통해 2024년 중 결정된다.

임거안테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은 "강력한 협력 관계가 환경분야 다자협력의 근간"이라며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5년 환경의 날을 유치한 한국 측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협약 체결이 예정된 2025년은 지구 환경보전의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탤런트 이경영



#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AMAS맞춤깔창

## 판매점 모집

삽인삽/한평삽/무점포

맞춤깔창의 대중화 선언

극소자본 창업

AMAS장비 무상지원

1년 무상 리폼을 통한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수욱~쓱

어린이**성장**깔창

10분 만에 측정하고 제작을 완성하는  
초간편! 초저가! 최고의 가성비!



세상 사람들의 발 아치(족궁)는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은 깔창을 신고 있습니다.

제2의 심장  
발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http://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82305381365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인증  
당신에게 좋은보험 삼성화재

# 학부모, 교사 폭행 등... 3년간 교권침해 고발 단 '13건 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6500여건 '교권침해' 관련 심의 고발 대상자 학부모 8건·학생 4건 교육청, 교권보호 대응에 소극적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6500여건의 '교권 침해' 관련 심의를 했지만,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고발까지 이어진 사례는 단 13건에 그쳤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교육청이 교권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21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최근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건수가 13건이었다.

지역으로는 ▲충남 3건 ▲경기 3건 ▲서울 ▲대구 2건 ▲부산 2건 ▲인천 1건이다. 혐의 내용은 폭행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박 2건 ▲불법촬영 2건 ▲추행 1건 ▲명예훼손 1건 등이었다. 고발 대상자는 학부모가 8건, 학생이 4건 등이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 진행 도중 다수 학생이 보는 앞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고발 사안〉 (2021~2023년 8월말)

연번	지역	기관명	연도	혐의 내용	처리결과
1	서울	본청	2021	협박, 공무방해	구약식(벌금형)
2	서울	본청	2023	상해와 폭행	진행중(조사 후 재심의)
3	대구	동부교육지원청	2021	무고	500만원 벌금형
4	대구	본청	2021	공연음란, 허위사실유포	구약식
5	충남	본청	2021	불법촬영	보호처분
6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2022	폭행	결과통보
7	부산	해운대교육지원청	2022	명예훼손	결과통보
8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	폭행, 상해	처리중
9	경기	본청	2022	협박, 공무방해	종료(피의자 사망)
10	경기	본청	2022	공무방해	진행중
11	경기	본청	2022	추행	확인중
12	충남	본청	2022	불법촬영	수사중
13	충남	본청	2022	폭행	수사중

/교육부

서 교사를 폭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총 6501건이다. 교권위원회에 회부된 사건 500건 중 1건만이 실제 고발로 이어진 셈이다. 교육청이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나 학생을 고발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이 교권을 침해당했을 때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라며 "교사가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도록 교육청과 단위 학교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을 훼손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까지는 (학생·학부모 대상 고발과 관련) 신중한 입장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악성 민원, 무고성 민원 등 공무를 집행하는 교사 활동에 대한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중앙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S등급

교육부, 별도 인센티브 추가 지원

중앙대학교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중앙대는 교육부 주관 재정지원사업인 '2주기대학혁신지원사업 I 유형(일반재정지원)'의 1차연도 연차평가 결과 교육혁신전략 영역과 자체 성과관리 영역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인 S등급과 A등급을 획득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 혁신을 통해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대학 교육 제공과 미래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총 117개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대학의 ▲혁신계획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 등을 평가했다. 특히 여러 지표 가운데 혁신계획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육혁신전략 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중앙대와 같이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달성한 대학에는 별도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한다.

중앙대는 이번 평가에서 대내외 환경변화와 여건 분석, 진단 결과를 반영한 구체적인 교육혁신전략을 갖추고



중앙대 정문 전경 /중앙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앙대는 현재 학생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신입생을 위한 기초소양 교육 활성화를 비롯해 적성을 고려한 기초교육과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며, 재학생의 전공 선택권 보장·확대를 위한 학사제도 개편, 첨단 교수학습 지원 강화 등 체계적인 교육혁신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박상규 총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중앙대가 교육혁신을 위해 들인 노력이 인정을 받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앞으로도 중앙대는 교육혁신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국가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혁신 성과 창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 동서울터미널, 40층 복합건물로 재탄생

서울시, 현대화 사업 추진 교통·문화·상업 기능 갖춰

서울시는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교통·문화·상업 기능을 갖춘 최고 40층 높이의 복합건물로 재탄생한다고 21일 밝혔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은 지하엔 터미널과 환승센터, 지상에는 수변 휴식·조망공간을, 공중부에는 상업·업무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시는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연면적 4만7907㎡)에서는 하루 평균 1000대 이상의 고속·시외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30년 넘게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와 주변 교통 체증으로 몸살을 앓아온 지 오래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건축 디자인은 과거 광나루 터를 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 조감도. /서울시

갔던 돛단배를 형상화해 한강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극대화한다. 타워 최상층을 비롯한 중층부 곳곳에 한강과 서울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전망 특화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망대 남쪽으로는 한강과 강남 도심, 북쪽으로는 남산타워와 북한산까지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즐길 수 있게 만들고, 공중정원과 수변 전망

데크를 설치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이 가능토록 계획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를 추진할 민간 사업자인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등)와 이달 중 사전협상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지구단위계획 결정, 2024년 말 건축 인허가 등을 거쳐 2025년 착공한다는 목표다. /김현정 기자 hjk1@

## 장애인 바우처택시, 요금 줄고 운행수 늘고

서울시, 이용횟수 월 40회 → 60회 운행 대수 종전 1600대 → 8600대

서울시는 25일부터 요금을 인하하고, 운행 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에 등록된 비휠체어 장애인 중 14세 이상인 서울시민이 중형택시를 호출해 탑승할 경우 요금의 75%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선 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의 이용요금을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5km까지는 1500원, 10km는 2900원, 20km는 3600원이다. 이용 횟수는 기존 1일 4회, 월 40회에서 월 60회로 늘린다. 바우처택시 운행 대수는 종전 1600대에서 8600대로 증가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경기도, 팔당댐 관리교 3년간 차량통행 중지

내년부터 보수·보강 공사 진행

경기도가 안전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보강 공사를 진행하는 팔당댐 관리교(담상부)의 차량 통행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전면 중지한다고 21일 밝혔다.

1973년 준공된 팔당댐 관리교는 국가 중요시설로서 팔당댐(남양주시 조안면~하남시 배알미동) 위를 가로지르는 담상부 통행도로, 연장 378m에 2차로다.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지 않고 팔당대교 등 우회로를 이용할 경우 이동 거리가 최대 9.5km 늘어난다. 이에 경기도와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협약을 체결하고 2006년 12월부터 휴일·공휴일 승용차, 소형 이하 화물차에만 통행을 허용했다. 이에 맞추는 하루 4천 대의 차

량이 팔당댐 관리교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국토안전관리원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댐 전반에 대한 구조 안전성 상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보수·보강 공사를 결정했다.

도는 팔당댐 관리교 통행 중지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교통방송, 공중파, 현수막, 내비게이션, 전광판, G-BUS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최대한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팔당댐 종합 보수·보강 공사 완료 전 한국수력원자력(주), 남양주시, 하남시 등과 공사완료 후 팔당댐 관리교 통행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유진재 기자 yujin@

## 호서대,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 나서

신한투자증권과 산학협력

호서대학교는 신한투자증권과 지난 20일 아산캠퍼스 본관에서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종원 호서대 학사부총장, 강준모 대외협력부총장, 한수진 경영대학장, 강소라 디지털금융경영학

과 학과장과 이병렬 신한투자증권 IPS 그룹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2024년도 신설되는 호서대 디지털금융경영학과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신한투자증권의 미래 금융산업을 이끌 디지털금융 전문인력의 실무능력 강화의 필요성으로 마련됐다.

이에 양 기관은 디지털금융 분야의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연구, 산학협력분야에서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교육과정 자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공동 연구 등을 수행하기로 했다.

호서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금융경영학과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신한투자증권은 미래 디지털 금융 분야에 역량을 가진 전문가를 발굴하고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 층층이 다른 여행지 온 듯.. 롯데 역량 집결 '하노이 랜드마크'

##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오픈

오픈 전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큰 기대를 모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이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가 22일 그랜드 오픈한다. 쇼핑몰, 마트, 호텔, 아쿠아리움, 영화관 등 롯데그룹의 다양한 콘텐츠를 한 데 모은 초대형 상업 복합단지다.

롯데쇼핑은 지난 7월 28일 연면적 약 35만4000㎡(약 10만7000평) 규모의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프리 오픈했다. 프리 오픈을 통해 주요 시설들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약 두 달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2일 그랜드 오픈하는 것이다.

프리 오픈 이후 현재까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의 메인 시설인 쇼핑몰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약 200만명에 육박한다. 하루 평균 약 3만명 꼴로, 주중에는 약 2만5000여명, 주말에는 5만명에 가까운 고객이 방문했다. 하노이 인구가 약 84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노이 시민 5명 중 1명이 방문한 셈이다. 특히 방문 인원의 절반 이상이 35세 미만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가 이처럼 빠른 시간 내에 하노이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롯데그룹 계열사의 다양한 콘텐츠가 모여 있으면서도 각각의 매장이 하노이의 기존 쇼핑몰과 차별화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 ◆층마다 차별화된 테마로 구성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는 베트남 현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단지 전경.



호텔 객실내부(어퍼하우스룸).

/롯데쇼핑

### 쇼핑몰·마트·호텔·아쿠아리움 등 콘텐츠 모은 초대형 상업복합단지

### 시범오픈때 시민 5명 중 1명 방문 입점 233개 중 85개 지역특화매장

### 가족 고객에 ‘챔피언 1250’ 인기 K-브랜드 6개, 매출 10위권 자리

쇼핑몰과는 다르게 쇼핑몰 각 층마다 차별화된 테마를 설정해, 층마다 각기 다른 여행지를 여행하는 인상을 준다. 1층은 프리미엄 브랜드 중심의 ‘인플루언서 에비뉴’, 2층은 젊은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한 ‘플레이그라운드’ 테마를 적용했다. 3층은 라이프스타일, 스포츠 등 가족 친화형 테마 ‘패밀리 윈더랜드’, 4층은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 파크’로 구성했으며, 5층은 어린이를 위한 공간 ‘키즈 판타지아’ 테마로 꾸몄다.

쇼핑몰에 입점한 총 233개 매장 중 약 40%인 85개 매장을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 매장으로 구성했다. 특히 3층과 4층에 집중된 식음료(F&B) 매장에는 베트남 현지의 맛집을 한 데 모은 ‘더 푸드 홀’, 한국 전문 식당가 ‘K-플레이버’, 파인 다이닝을 모티브로 한 ‘고메 에비뉴’ 등 다양한 메뉴를 구성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 ◆가족 고객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젊은 가족 단위 고객 비중이 높은 베트남 수요에 맞춰 가족 고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어린이 실내 놀이터 ‘챔피언1250’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를 방문한 젊은 가족 단위 고객에게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쾌적한 환경에서 스포츠 체험이 가능해 시범 운영 첫날부터 많은 인파를 불러모았다.

그랜드 오픈일에 맞춰 선보이는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는 사

전 멤버십 모집 시작 3일만에 가입자가 1000명이 넘는 정도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자연과 어우러진 환경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단지 뒤편으로는 하노이 대표 관광지인 서호(西湖, West Lake)가 펼쳐져 있다. 서호는 호수 둘레가 17km에 달하는 하노이 최대 호수로, 특히 석양이 지는 풍경이 아름다운 것으로 유명하다. 롯데몰 웨스트레이크는 서호와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부뿐 아니라 쇼핑몰 내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대형 유리 천장을 설치해 자연 채광을 극대화했다. 쇼핑몰 중앙과 좌우 양측 총 3곳의 큰 공간(보이드)을 통해 쇼핑몰 내부 1층까지 자연 채광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이동하는 동선은 최대 폭 9.6m로 고객이 밀집해도 쾌적하게 쇼핑할

수 있다.

쇼핑몰 외에 호텔 ‘L7바이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객실에서도 석양이 내리는 서호와 야경을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다.

###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도

베트남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K-컬처’ 인기가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 동안 패션, 뷰티, F&B 등 전 상품군에 걸쳐 유치한 총 36개의 한국 브랜드 중 6개가 매출 상위 10개 브랜드에 이름을 올렸다. 어린이 실내 놀이터 ‘챔피언 1250’을 비롯해 패스트푸드 전문점 ‘롯데리아’, 즉석떡볶이 전문점 ‘두끼’, 주방용품 브랜드 ‘락앤락’, 패션 브랜드 ‘엘엘비’ 등이 매출 상위를 차지했다. 쇼핑몰 3층 한식 전문 식당가도 현지인들의 대기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그랜드 오픈을 맞아 오는 22일 롯데몰 웨스트레이크에서 오픈 기념식을 진행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롯데 유통군 김상현 부회장,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 롯데백화점 정준호 대표, 롯데마트 강성현 대표 등 관련 계열사 임원과 베트남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픈 기념식에 참석하는 신동빈 회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 일정 동안 현지 사업장을 둘러보는 한편, 베트남 정·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롯데의 베트남 사업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도 요청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JW중외제약 ‘통풍치료 신약’ 태국서 임상3상 승인

‘에파미뉴라드’ 대만 이어 두번째 싱가포르·말레이에도 IND 신청 5개국서 환자 588명 대상 전개



JW중외제약 과천시사옥.

JW중외제약은 지난 18일 태국 식품의약품(FDA)으로부터 통풍치료제 ‘에파미뉴라드’에 대한 임상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에파미뉴라드가 해외에서 임상 3상 IND를 승인받은 것은 지난달 대만에 이어 두 번째다.

JW중외제약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5개국에서 총 588명의 통풍 환자 대

상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을 전개하기 위해 각국에 IND를 신청했다.

현재 한국과 대만, 태국에서 IND를 승인받았으며 지난 7월과 8월에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에 각각 IND를 신청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3월부터 환자 등록 및 투약을 시작했다.

JW중외제약은 이번 IND 승인에 따라 태국 통풍 환자를 대상으로도 에파미뉴라드의 효용성(혈중 요산 감소 효과)과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

경구제로 개발하고 있는 에파미뉴라드는 혈액 내에 요산 농도가 비정상적

으로 높은 고요산혈증으로 인한 통풍 질환에 유효한 신약후보물질이다.

JW중외제약은 지난 2021년 3월 종료된 국내 임상 2b상에서 에파미뉴라드의 우수한 내약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1차와 2차 유효성 평가변수도 모두 충족했다.

JW중외제약은 에파미뉴라드 임상 3상과 함께 글로벌 기술수출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9년에는 중국 심시어제약에 중국, 홍콩, 마카오 지역 대상 개발 및 판권을 기술수출한 바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롯데칠성음료

## 추석음식과 함께 즐기는 ‘가성비 와인세트’ 추천

롯데칠성음료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부담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와인을 선보였다.

롯데칠성음료는 ‘트리벤토 리저브 2종’과 ‘롯데 시그니처와인 2종’ 세트를 추석 음식과 어울리는 와인으로 추천한다고 21일 밝혔다. 2만~3만원대 가격으로 부담없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할 수 있다.

‘트리벤토 리저브 2종’은 전세계 아르헨티나 와인 판매 1위 브랜드이며, ‘트리벤토 리저브 카버네 소비뇽’과 ‘트리벤토 리저브 말벳’ 등의 2종 세트 구성되어 있다. 아르헨티나 명산지 멘도사 지역에서 100% 생산하는 와인으로 명절 음식의 풍미와 와인의 무게감이 잘 어울리며 가격 부담없이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마실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와인이다.

‘롯데 시그니처와인 2종’은 롯데칠성음료와 롯데그룹 유통 계열사가 공동 기획한 시그니처 와인 2종을 담은 와인 세트, 스페인 와인 ‘탄 멘시온 리제르바’와 호주 와인 ‘더 슬라우치 슈라즈’로 구성됐다.

세트 구성 중 하나인 ‘탄 멘시온 리제르바’ 와인은 스페인 리오하의 프리미엄 와이너리 ‘보데가스 란(LAN)’에서 한국 시장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와인이다.

/신원선 기자

# GS25 “반값택배 300원 할인 받으세요” 동의보감 제법 구현 ‘녹십자경옥고’ 출시

### 토스앱 접수 할인 이벤트

GS25는 추석 연휴 반값택배 이용 고객들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토스 앱에서 반값택배 접수 시 300원 할인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할인 적용 시 고객들은 최대 1500원에서 2300원으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GS25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이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인 만큼 뒤늦은 선물을 보내거나 중고

거래 등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연휴 동안 반값택배의 접수 건수는, 지난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57.2%, 2022년에는 88.6%로 꾸준히 증가했다.

‘GS25 반값택배’는 휴일과 명절에도 상시 운영된다. 이용자가 GS25 점포에서 택배를 접수하면, 수령자는 GS25 점포에서 찾아갈 수 있다. 접수, 배송, 수령까지 모든 서비스가 GS25의 물류배송망과 자체 인프라를 통해 이뤄진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GC녹십자 ‘한방 보혈강장제’

GC녹십자가 동의보감 제법을 첨단 과학 기술로 구현하면서 신제품을 선보인다.

GC녹십자는 한방 보혈강장제 ‘녹십자경옥고’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녹십자경옥고는 육체피로 및 허약체질의 자양강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다. 경옥고는 ‘진귀한 옥과 같은 약’이라는 의미로 명의 허준이 석약이라고 표현할 만큼 높은 효

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C녹십자는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동의보감 제법을 최대한 구현했다. 자체 설계한 숙성탱크를 활용해 120시간의 가열, 냉각, 재가열 등 온도 조절 시스템과 클리닝 시스템을 자동화한 것이다.

아울러 녹십자경옥고는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를 사용하고 있다. GC녹십자는 특히 성상·함량·중금속·농약 등에 대해 철저히 품질 관리한다.

/이청하 기자

# 인천국제공항 항공연결성 지수, 아·태 지역 '최고 수준'

(아시아·태평양)

2023 공항 연결성 지수 분석  
중동·아태지역 100개 공항 중 3위

인천공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항공연결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공공사)가 지난 19일 국제공항협회(ACI) 아시아·태평양·중동에서 발표한 "2023 공항 연결성 지수 분석" 결과 인천공항이 100개 공항 중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카타르 도하에 이어 항공연결성이 가장 우수한 공항 3위에 올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중동을 제외한 아태 지역에서 인천공항이 가장 높은 순위다. 인천공항은 2019년에도 3위를 기록했으나



인천국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하락한 바 있어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항공 연결성 지수는 각 공항의 취항 도시수, 항공편 운항횟수, 환승 연결성에 초점을 맞춘 항공편 스케줄 등을 분

석해 해당 공항 이용 시 얼마나 많은 도시에 보다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주로 공항의 허브화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진다.

ACI는 "항공 연결성 향상은 국가경

제 및 사회적으로 큰 이점을 제공한다"며 "항공운수권 자유화, 저렴한 항공운임, 공항 인프라 투자 소요재원 확보를 위한 공항이용료 책정 유연성 확보 등은 연결성 향상을 위한 필요사항"이라고 밝혔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허브공항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항공 연결성 측면에서 아태 지역의 주요 공항들을 제치고 인천공항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보다 다양한 항공편 유치는 물론 여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설들의 확충을 통해 '인천공항에 가야만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하이트진로, 제주도 반려해변 환경정화

하이트진로가 제주도 담머리 해안에서 반려해변 정화활동을 실시했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12일 하이트진로 제주지점 임직원들이 제주 시 조천읍 담머리 해안과 인근 해안도로를 따라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세번째 반려해변 정화활동이다. /하이트진로



## BMW, 두원공대와 정비인력 육성 맞손

BMW가 두원공과대학교와 전문 정비 인력 육성에 나선다. BMW그룹코리아는 20일 두원공과대학과 산학협력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양측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 지원을 받아 세분화된 자동차 정비 전문 인재를 육성하며 정비 인력난 해소 및 채용 기회 확대에 힘을 합칠 예정이다. /BMW



## 양천 목사랑시장서 장보기 캠페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중소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행축제를 맞아 '전통시장 기(氣) 살리기'에 나섰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동행축제 흥행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목사랑시장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업유통센터

# 손병두 이사장, 세계거래소연맹 이사직 연임 아시아나항공, 9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

아시아·태평양지역 이사 재선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0일 (현지시간) 버뮤다에서 개최된 제62차 세계거래소연맹(WFE)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대표 이사로 재선임됐다. 이로써 한국거래소는 2007년 이래 8회 연속 WFE 이사직 유지에 성공했다.

세계거래소연맹은 1961년에 설립된 거래소 연합체로 약 80여개의 세계 정규거래소를 대표하고 있다. WFE 회원들은 한국거래소가 글로벌 자본시장 협력, 거래소 산업의 디지털 전환, 지속가능성의 확산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WFE 이사회는 연맹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미국, 독일, 홍콩 등 세계 주요거래소 CEO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지역별 이사 15석(아시아·태평양 5), 미주 5), 유럽·아프리카(5)), 의장단 3석 등 총 18석으로 구성됐다. 이중 아태 지역대표 이사는 이번 총회에서 당선된 한국·일본과 더불어 상해, 홍콩, 인도 거래소이다.

한국거래소 측은 "향후 규제환경의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자산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아시아의 대표 거래소로서 WFE와 긴밀히 협력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2023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아시아나항공(원유석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사진)이 '2023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에서 9년 연속 '항공 부문' 1위에 선정됐다. 21일 서울시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된 2023년 KCSI 시상식이 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로써 1995년 항공 부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총 28회 평가 중 25차례 1위를 차지하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후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맞춘 국제선 운항 확대 ▲여행 세포 연구소·팝업스토어 등 여행심리



회복 캠페인 ▲호텔·금융·쇼핑 등 다양한 업종과의 제휴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으로 고객에게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으로도 ▲꾸준한 여객 노선 네트워크 확대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위한 운항·캐빈 승무원 훈련 지속 등 친환경 ESG경영 강화 ▲차세대 친환경·고효율 항공기 도입을 통한 기재 경쟁력 강화 등으로 '최고의 안전과 서비스를 통한 고객 만족'을 이어갈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 포스코, 전통시장서 4000만원 '착한 선결제'

포스코와 공급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포스코 기업시민프렌즈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착한 선결제 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착한 선결제는 지역 전통시장 점포에 일정 금액을 선결제 한 후 교환권을 발행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활동이다. 지역 취약계층은 티켓을 활용

해 전통시장 내에서 다양한 생필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포스코 기업시민프렌즈는 19일 포항 연일시장, 20일 광양 중마시장을 각각 방문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포항과 광양 전통시장에 지원한 금액은 총 4000만원이며 현재까지 누적 선결제 금액은 총 1억6000여 만원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쇼핑하고 예술 작품도 관람하세요"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

'갤러리 SP'와 한진 작가 작품 전시

한화 갤러리아 백화점이 쇼핑과 함께 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회를 마련했다.

갤러리아 백화점은 서울 명품관에서 화랑 '갤러리 SP'와 함께 한진 작가의 작품을 이달 30일까지 전시 판매한다

고 21일 밝혔다.

한진의 작품은 추상적인 대상과 감각을 시각화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작가는 이러한 특징을 살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순간의 움직임을 포착해 작품으로 표현한다. 전시 작품은 백사시용, Tone roads 등이며 작품 가격은 600만원에서 1500만원대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삼육대 임동술 교수, 학과 발전기금 쾌척

삼육대학교는 임동술 약학과 교수가 지난 8월 말 정년퇴임을 맞아 학과 발전기금 3000만원을 쾌척했다고 21일 밝혔다. 삼육대 교수들은 퇴임하며 후학양성을 위해 학과 발전기금을 내놓는데, 이 같은 기부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임 교수는 그간 14차례에 걸쳐 총 6500여 만원을 기부했다. /삼육대

# 여경협, 여성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 진행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미래 여성경제인 육성을 위한 행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여경협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2023년 여성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학생들이 지역 여성 CEO의 경영현장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진로에 대한 인식과 시각을 확장하도록 돕기 위해 여경협이 '미래여성경제인 육성사업' 일환으로 올해부터 시작한 여성기업 현장체험에는 올해 전국 16개 대학교 및 고등학교 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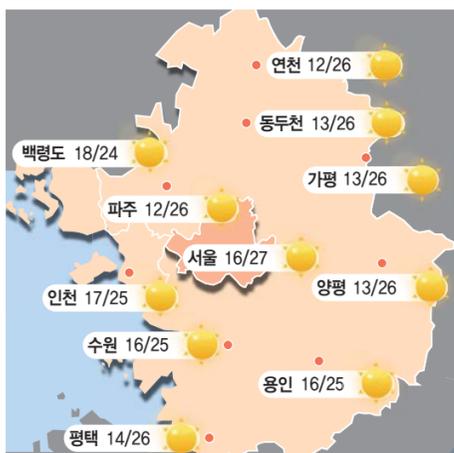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앞줄 왼쪽 5번째)이 여성기업 현장체험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총 398명이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19 | 해질 / 18:3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인사

◆국토연구원 ◇보직스부원장 김명수

## 부음

▲전두한씨 별세, 김다란(남도일보 정치부 기자)씨 외조모상=발인 23일 오전 8시,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장례식장 106호, 장지 삼덕공원묘원. 070-5051-8666

▲김수봉씨 별세, 김장환·김상범(위너케이 대표)·김미성씨 부친상, 정용우씨 장인상, 문인숙·고현주씨 시부상 = 21일 오전, 서울아산병원장례식장 31호실, 발인 23일 오전 5시40분, 장지 성남시영생원 용인공원. 02-3010-2000

# 풍성한 한가위가 되세요

유한양행은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꿈꾸는 세상,  
모두가 건강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유한양행

# 추석물가와 짜장면



**이정혁**  
西村브리핑

민족 명절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서민들 마음은 편치만은 않다. 시장이나 마트에 나가보면 오르지 않은 게 없다는 하소연이 절로 나온다. 한국물가 정보 조사 결과 올해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에서 차례상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은 30만9000원, 대형마트에서 구입할 때 비용은 40만3280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비용은 최저 평균값이다. 이 때문에 벌써 추석 차례상을 걱정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고물가 기조가 계속되자 차례를 포기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20일 발표한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21.16으로 전월 대비 0.9% 올랐다. 국제유가 오름세에 석유제품이 크게 뛰고, 농산물과 서비스 가격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 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과 서비스 판매 가격을 조사해 작성하는데, 통상 1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앞서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3.4% 올라 석달 만에 3%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3.9%나 올랐다. 추석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사과, 복숭아 같은 과일 물가는 1년 전보다 13% 넘게 상승했다. 신선식품인 채소 원가를 보면 지난 8월 초 껌 잎 1kg 한 상자가 1만2000원에서 9월에는 2만원, 열갈이 배추 한 단이 4000원에서 1만원으로, 미나리 한 단이 4000원에서 8000원으로, 열무 한 단이 4000원에서 1만원으로 뛰었다. 신선 식품 뿐만 아니라 식용유도 지난해보다 10% 오르는 등 식품 전반의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외식 물가도 오름세다. 올해 4월 7.6%까지 올랐던 외식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5.3%로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2배 가까이 높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소비자들 많이 찾는 8개 외식 품목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많게는 10% 이상 올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품목은 짜장면으로, 지난해 8월 평균 6300원이었던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올해 8월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0% 가량 오른 7000원으로 뛰었다.

다른 외식 품목도 마찬가지다. 냉면과 삼계탕, 비빔밥 등 대표 서민 외식 메뉴는 이미 서울에서 1만원으로 먹기 어렵게 된 지 오래다. 국민 간식이라 불리는 피자(라지 사이즈) 한판과 치킨 1마리도 배달비 포함하면 3만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二重苦)를 떠안은 소비자들은 허리를 바짝 졸라매고 있다. 밖에서 음식을 사 먹기 겁날 정도다.

당장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물가가 걱정이다. 정부가 추석 명절 물가 관리를 위해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서민들은 깊게 체감을 못 하는 분위기다.

물가 안정은 서민 생활의 기본이다. 먹고 사는 민생 물가가 무섭게 뒤흔칠수록 정부나 국회의원들한테 배신감을 토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민생은 뒷전인 채 서로 편을 갈라 싸움질만 일삼고 있다. 나라 살림 꾸리고 정치하는 분들 제발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랄 뿐이다.

/ljh@metroseoul.co.kr

# 개미들도 눈을 낮출 때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에서의 기대수익률은 급격하게 올라갔다.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국내 증시의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했고, 때마침 수익률 100%를 기록한 투자자들도 적지 않다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이다. 이때이득을 맛보거나 증권가 소문에 솔깃했던 개미(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의 평균 수익률에 만족하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황세운 자본시장 연구원은 "코로나19 당시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됐고, 당시 연간 100% 정도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연간 100% 수준의 수익률은 상당히 드문 사례임에도 다수의 투

자자들이 높은 기대수익률을 갖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코로나19 전후 개인 투자자의 손익률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율은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 64.8%였지만, 2021년 73%로 상승했다. 총 거래대금도 2964조원에서 9885조원으로 약 3배 가량 증가했다.

초보 투자자의 대거 유입으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이 근래 속출했다. 202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개인이 주식을 사들이면 오히려 해당 종목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 등 개미들의 수익이 떨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은 "코로나19 국면의 개인 투자자는 낮은 산투자 수준, 과잉거래, 벤치마크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투자행태는 다양한 행태적 편익과 연관돼 있어

향후 개인 투자자의 투자성과 제고 및 투자습관 개선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의 당부와 달리 국내 증시는 과도한 거래회전율, 잦은 종목교체 현상을 유지해왔다. 테마주를 향한 투기적 투자가 급증하면서 우려했던 개미들의 '빛투(빛내서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위드코로나 이후 자본시장의 건전화 역시 금융당국의 숙제였지만 오히려 우려는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에서는 주식 수익률이 연간 10%만 나와도 긍정적인 실적이라고 평가한다. 심지어 업계 한 관계자는 주식을 오래한 사람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만 아니어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제는 개미들도 과도한 기대감을 낮추고 실적에 기반한 논리적인 투자태도를 고민해 봐야하지 않을까.

/godhe@

오늘의 운세 9월 22일 (음 8월 8일) http://www.saju4000.com

- 쥐** 36년생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고 돛이다. 48년생 마음이 우울하나 답이 없다. 60년생 뜻은 원래하나 현실은 만만하지 않다. 72년생 하나를 뿌려서 열 개를 수확하는 운이 좋은 날. 84년생 우는 아이는 우선 달래야 한다.
- 소** 37년생 잘못을 인정하면 만사가 잘 풀린다. 49년생 한밤중에 비단옷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격. 61년생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73년생 잠시 주변을 돌아보라. 85년생 결혼의 새로운 인연을 만나니 다시 결심.
- 호랑이** 38년생 멀리 가는 이사보다는 때를 기다리자. 50년생 병 주고 약주는 자식들이다. 62년생 비운 뒤임이 굳어지니 기다려보라. 74년생 실력이 없는 사람이 더떠들어 다니 시끄럽다. 86년생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휘두르듯 행동말라.
- 토끼** 39년생 재산을 나눠주니 속빈 강정이 되었다. 51년생 호랑이가 죽으면 멋진 가족을 남기듯이. 63년생 지시하고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간다. 75년생 근거 없는 자신감만 가득. 87년생 결핵성의 질병에 유의.
- 말** 40년생 소금장사 나가는데 비 오는 격. 52년생 새로운 기회로 한 단계 상승할 수 있다. 64년생 삶의 중심은 항상 신념이 있어야 한다. 76년생 흉탕물은 잠시 두면 저절로 맑아진다. 88년생 지치기 쉬운 날이니 충분한 휴식이 필요.
- 뱀** 41년생 건강을 위해 등산을 해 보는 것도 좋다. 53년생 구설에는 목욕부담(??不濯)이 최신 일듯. 65년생 모난 돌이 정 많은 법이니 오늘은 자중. 77년생 분수에 맞는 소비를 해라. 89년생 시간은 노력하다보면 통찰력을 준다.
- 말** 42년생 얼룩진 옷은 비러만 본다고 깨끗해지지 않는다. 54년생 김치국부터 마시다가는 큰 낭패. 66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말조심. 78년생 의견이나 주장이 있어도 싸우지 마라. 90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 양** 43년생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니 신중하게. 55년생 사소한 실수로 그동안 공들였던 일이 무산될 위기. 67년생 소문난 잔치에 먹은 것은 별로 없다. 79년생 역마의 운이 있으니 열심히 움직여라. 91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른다.
- 원숭이** 44년생 죽은 나무에 물을 주는 것은 괜한 시간 낭비. 56년생 배우자가 나의 고생을 알아주니 피곤이 풀린다. 68년생 봄 처녀 마음처럼 설레는 하루. 80년생 구름이 가리니 일을 늦추는 것이 상책. 92년생 어린 사람과의 갈등이 생기니 주의.
- 닭** 45년생 잘 알지 못한다면 나서지도 마라. 57년생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데. 69년생 독감에 유의. 81년생 행복은 결과가 고유한 것이니 공부하라. 93년생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삼세지습 지우팔십삼歲之習 至於八十.
- 개** 46년생 추위가 닥쳐오니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라. 58년생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자. 70년생 때를 다 놓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82년생 삶의 질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으로 결정. 94년생 돼지우리를 만들고 돼지를 사러 나가라.
- 돼지** 47년생 흥년에 땅을 사면 원망을 듣는다. 59년생 사랑하며 살기에 부족한 시간이니 남을 미워 마라. 71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 83년생 살면서 생긴 지혜가 진정한 지혜. 95년생 곱절을 깨뜨려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 김상회의四季 전원주택 투자

지방에 전원주택을 예쁘게 짓고 살다가 팔려고 내놓은 지인이 하소연했다. 공들여 신축하고 5년밖에 안 된 새집인데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보러오는 사람조차 없어 가격을 시세보다 낮게 내놓았는데 그래도 문의조차 없어서 속이 터질 지경이란다. 십여 년 전에는 전원주택이 인기 좋았는데 이렇게 급하게 쥐일 줄은 몰랐다고 한숨을 쉬었다. 최근 들어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이라고 부르는 시골의 주택들이 매물로 많이 나온다고 한다. 문제는 팔리지 않고 곳곳에서 매물이 더 늘어나는 것이다.

전원주택은 한때 은퇴자들의 꿈이었다. 평생 시달리던 도시에서 벗어나 전원주택을 짓고 귀촌하는 꿈을 꾸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트렌드가 바뀌었다.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사실 전원주택은 도시 사람이 살기에 편하지 않다. 집 주변 청소와 마당 관리는 물론이고 물건이 고장이라도 나면 스스로 고쳐야 한다. 시골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면 모두 고된 노동이 된다. 일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병원 가기도 어렵다. 금전적으로 보면 문제는 더 커진다.

도시 아파트는 사이클을 타고 집값이 오르지만 시골 전원주택은 오르는 경우가 드물다.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이 내려가기까지 한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 가격이 힘을 받지 못한다. 가끔 은퇴한 분이 전원주택 투자를 물어보곤 하면 최근의 사례들을 들려드리곤 한다. 직접 신축할 때도 땅 구매나 지목 변경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서 뜻밖의 난관에 부딪히곤 한다. 현실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로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사람이 꽤 있다. 어떤 투자든 어렵다. 그중에서도 전원주택은 거주와 투자 어느 측면이든 조심해 조심해 거듭해야 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새벽나눔**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 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퍼즐 **사투리이스토쿠**  
손호성 저 | 스토쿠66 | 10,000원

			1		
	2	4	3	6	
4	6		9	1	8
2					7
3	7			9	4
9					1
1	8		3		4
		3	5		9
			4		

		5		7	3	
	9					5
1			5	3		2
		6	7	9	1	
7						5
		1	2	6	4	
9			1	2		8
	6					1
		2		8	5	

고난이도의 월드컵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정답**

6	8	1	7	8	9	9	2
1	2	8	6	9	9	8	7
9	9	7	2	8	2	8	1
9	1	2	8	2	8	7	6
7	9	6	9	2	1	2	8
8	2	8	7	9	6	1	2
8	8	1	9	6	2	9	7
2	6	9	8	7	2	9	1
2	7	9	2	1	9	6	8

9	6	9	2	8	7	2	1	8
7	1	2	9	6	8	2	9	8
8	8	2	2	9	1	7	9	6
6	2	7	9	8	2	1	8	9
9	2	9	7	1	8	6	8	2
8	8	1	6	9	2	9	7	2
2	9	6	8	7	9	8	2	1
2	9	8	1	2	9	8	6	7
1	7	8	2	6	9	2	9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무겁지 않지만 풍미 가득... 궁극의 균형미란 이런 것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조화로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진정 위대한 와인들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할란 이스테이트 2019에 대한 로버트 파커紙 평가)

특유의 밀도로 풍미가 가득하지만 전혀 무겁지 않다. 산도와 미네랄 느낌이 해맑더니 겉은 과실의 깊이감은 고전적인 나파밸리 와인이다. 민트향이 야생의 숲인데 입 안에 들어온 와인은 정제된 실크같이 유려하다. 자꾸만 빨은 말을 뒤집게 한다. 조화로운 모순이라고 평한 이유를 알만하다.

보통 좋다는 와인일수록 까탈을 부릴 때가 많다. 시음 적기가 10년 뒤인 와인을 일찍 오픈하면 단단한 타닌만 얼르고 달래다 마지막 남은 몇 방울에서만 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다. 반대로 적기를 놓치면 시들한 모습만 보다 끝난다.

‘할란 이스테이트 2019’는 그런 고정관념을 깬다. 10년 뒤에 마시면 정말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



①할란 이스테이트 2018 빈티지(왼쪽)와 2019 빈티지. ②할란 이스테이트 와인 저장고.



/안상미 기자, 나라셀라

마셔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서다.

2019 빈티지의 국내 출시를 기념해 소몰리에들을 대상을 시음회를 했더니 다들 어리둥절 했다. 대체불가 컬트와인, 민고 마시는 할란이지만 2019년 빈티지에 대한 평가는 남달랐다.

비결은 밸런스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것이 없이가득하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튀는게 없다. 할란 이스테이트 2019는 궁극의 균형미란 이런 것임을 보여주겠다는 와인이다. 워낙에 균형이 좋다면 이대로 장기 숙성이 가능할까 싶을만큼 산미는

적당하고, 타닌은 부드럽다.

궁극의 균형미는 완벽을 위한 집념에서 나왔다. 설립자 윌리엄 할란(빌 할란)은 처음부터 캘리포니아 특1등급(First Growth) 와인을 목표로 했다. 보르도와 부르고뉴의 1등급 밭을 둘러보고는 나파밸리 전역을 살살이 뒤졌다. 이게 1972년인데 와인을 처음으로 시장에 내놓은 것이 1996년이다. 그 사이 와인과 양조, 포도재배를 연구, 또 연구했다. 1987년 첫 와인을 나왔지만 품질이 목표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빛을 보지 못했고, 정식 출

시는 1990년 빈티지부터다.

고집은 여전하다. 지금도 포도 재배는 물론 와인 양조 등 모든 과정에서 외주없이 엄격한 규칙을 고수한다.

단위 면적당 소출을 극도로 제한해 얻은 농축된 과실은 일일이 낱알로 선별해 연간 2만병 이하의 와인만 내놓는다. 빈티지의 기복이 크게 없이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다.

2019년엔 하늘까지 도왔다. 날씨 말이다.

그 해 나파밸리는 겨울엔 비가 많은 오너니 봄은 선선했다. 포도 나무의 싹이 트는 속도를 늦춰 산도와 풍미가 풍부한 와인을 생산하기 적합한 조건이 됐다. 꽃이 필 무렵부터 여름까지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특히 카버네 소비뇽 품종에서 집중력 있는 맛과 신선한 산미, 고전적인 스타일을 갖춘 와인이 생산될 수 있도록 했다.

음식과의 궁합을 고민한다면 와인의 복합미를 잘 살릴 수 있는 숙성 또는 발효에서 아이디어를 찾으면 된다. 같은 소고기라도 숙성된 것을 굽거나 아니면 기본 재료에 발효시킨 소스를 곁들여 먹는 식이다.

/smahn1@metroseoul.co.kr



자료 협조

## 주말은 책과 함께

### 계획 세우기보다 바로 행동하라

추석 황금연휴에 친구와 인도 여행을 가려고 날짜까지 잡아놨다가 중간에 관둬다. ‘인도 치안’을 검색하면 나오는 흉흉한 사건·사고들 때문이다. 여행 정보를 찾아볼수록 가지 않을 이유가 쌓여갔고, 결국 필자는 인도 여행을 포기했다. 반면 친구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울기를 인도로 떠나기로 했다. 재미있는 점은 이런저런 자료를 찾으며 계획을 세우던 필자는 겁에 질려 인도에 갈 수 없는 상태가 됐고, 친구는 ‘일단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심정으로 꿈의 여행지였던 인도에 간다는 것이다.

‘빠르게 실패하기’는 필자처럼 계획을 망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저자들은 조사와 분석, 철저한 준비와 대비책을 마련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생각을 즉각 행동에 옮기는 일뿐이라는 것.

스탠퍼드대 평생교육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어떤 일이든 시도하지 않고 망설이며 몸을 사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인생 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피실험자들에게서 나타난 공통점은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 정보를 잔뜩 수집해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수립함 ▲큰 성공만 추구함 ▲바쁘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함 등이다.

실험 참가자들은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발견



#### 빠르게 실패하기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 지음/도연 옮김/스노우폭스북스

했다. 목표로 세운 일이 너무 벅차서 지레 겁을 먹고 이루기 어려운 이유들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시작을 미룬다. 안타까운 점은 막상 도전해볼 기회가 찾아와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오해해 인생의 찬스를 날려버린다는 것이다.

책은 엉덩이가 무거운 독자들에게 ‘재빨리 행동에 뛰어들라’고 충고한다. 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나 실패를 피할 방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 오히려 능력과 지식의 한계를 드러낼 기회를 열심히 찾아다닌다”며 “이 행동은 그들이 무엇이든 재빨리 배우게 만든다. 그리고 미숙한 준비야말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조건임을 깨닫게 한다”고 이야기한다. 성공은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이 아닌 연관 없이 보이는 작은 행동들로 시작된다는 걸 알려주는 책.

364쪽, 1만6500원.

/김현정 기자 hjk1@

### 협오

네이던 스트로슨 지음/홍승수, 유민석 옮김/arte(아르테)

협오를 드러내는 것을 ‘표현의 자유’로 허용해야 할까, 아니면 ‘검열’을 통해 협오 표현을 차단해야 하는 걸까. 책은 법학·역사학·사회과학·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통해 협오 표현을 법률로 제한하는 게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밝히며, 차별과 협오에 맞서는 방법은 법적 제재가 아닌 더 많은 표현

(협오 표현에 대항하는 모든 표현)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저자는 “우리가 말하면 안 되거나 들으면 안 되는 말과 사상을 선택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것은 개인 자율성의 본질이자 민주적 자치를 위한 필수 요소인 사상의 자유를 질식시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332쪽, 2만8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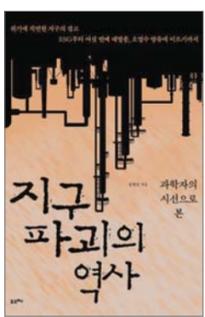
### 지구 파괴의 역사

김병민 지음/포르체

챗GPT로 소설 쓰는 법, 영어 배우는 법, 노래 만드는 법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류는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환경이 파괴되는 아이러니를 맞닥뜨렸다. 생성형 AI가 몇 가지 문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우리는 쉽게 답을 얻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책은 인류의 성장이

파괴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성장 우선주의자들은 최첨단 과학 기술이 기후 재난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 플라스틱은 바다 생명체들에게 고통을 떠넘겼고, 알고리즘은 사람들의 눈을 왜곡하고 있다. 책은 파괴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지구와의 공생을 제안한다.

320쪽, 1만8000원.



### 괴물 부모의 탄생

김현수 지음/우리학교

“내 아이가 아이들이 되고 싶어 하니 창가 좌석이 앉히지 마세요”, “반에 아이와 맞지 않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애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켜 주세요” 진상 학부모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는 상식을 초월한다. 책의 저자인 김현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괴물 부모의 심리 구조를 크게 일곱 가지로 분석한다. 이들의 마음은 ▲자기 증

오와 자기 연민 ▲병적 자기애와 유아적 전능감 ▲과도한 불안과 트라우마 ▲부모와 자녀의 일체화, 공생 ▲책임 전가 대상 찾기 ▲희생의 대가와 조건부 사랑 ▲탈락과 배제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의식으로 병들었다. 허약한 공동체와 각자도생 사회가 부모들을 괴물로 만들었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172쪽, 1만6800원.



## 뉴스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나사 최초의 소형성 탐사선, 채취한 샘플 24일 지구에 투하 /사진 뉴시스  
▲연내 금리 인상 시사한 연준...‘매파적 동결’

▲中, 반도체 원료 수출건수 ‘0’...日 “반도체 산업 파장 우려”  
▲아이폰15 출시일인데...애플, 프랑스 서 파업 직면



▲시진핑, 아시안게임 개막식 참석...외빈 환영 행사 /사진 뉴시스  
▲中 화웨이 창업자 “막내딸 아이폰 쓴다”...애플 팬 자처



야외를 거닐면 누워서 쉴 수 있는 '해먹'.



아파트 내 휴게공간.



작은 오두막 하우스.



야외 운동기구.



'드로잉 큐브' 미끄럼틀.

## 놀이터 뛰노는 아이 웃음소리 가득 구름 위 오봉산 절경 즐기며 '힐링'

### 아파트의 미학(美學)

####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오봉산 내 입자... 대규모 녹지공간 최고층에 '스카이 커뮤니티' 조성 돌봄센터 등 키즈 특화 시설 풍성

최근 찾아가던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의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단지를 둘러보니 키즈스테이션, 키즈체육관, 그로잉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 키즈에 특화된 시설들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가히 아이 키우기가 좋은 '키즈 특화 아파트'로 불릴 만 했다.

아파트 입구에 투명하게 안이 들여다보이는 룬이 있다. '키즈스테이션'으로 명명된 이 곳은 책상 2개와 의자 8개를 갖추고 있는 시설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아이에게 음식도 먹고 고 아이들의 놀이도 진행할 수 있는 곳이다.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는 신혼희망타운 아파트로 건축된 곳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까지 11개동, 전용면적 56~59㎡ 총 87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58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됐으며, 전용면적별로는 56㎡ 462가구, 59㎡ 408가구로 구성된다.

이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는 오봉산과 연결되는 자락숲 공간이 마련되고, 자연을 품은 친환경 조경 설계로 꾸며졌다. 벚꽃나무가 식재되는 시그니처 가든, 산책로를 품은 그린 에비뉴, 가족과 여유로운 일상을 누리는 패밀리 가든 등이 조성돼 단지 내에서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아파트를 외부공간으로부터 차단하기 위해 투명하게 외벽이 쳐져 있는 것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야외 공간에는 아파트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4테이블과 각각의 의자 4개씩이 마련됐으며, 넓직한 테이블로 다양한 용로도 사용 가능하다. 테이블 근처를 보면



놀이터 앞에 위치한 '레인보우 하우스'. 의자가 4개 배치돼 있고 천장도 막아져 햇빛을 피하며 아이를 관찰하기에 좋다. /채윤정 기자

나무 사이에 해먹이 설치돼 있는데, 하늘을 바라보며 눕고 싶을 때 잠시 눕거나 해먹에서 수면을 취할 수도 있다.

정문에 들어가자마자 '커뮤니티센터1'이 보였는데 이 센터에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인 다함께 돌봄센터와 키즈체육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특히 이 센터 밖에는 커다란 유모차 보관소가 보였는데 유모차를 밖에 세울 필요가 없이 유리문을 열고 유모차를 안에 비치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한 유모차가 차지하는 공간도 엄청 넓어 스토커 같은 커다란 유모차를 세우는 데도 안심 맞췄다.

단지 안쪽으로 들어오니 놀이터가 보였는데 이 곳에 '레인보우 하우스'가 설치돼 있었다. 레인보우 하우스는 의자가 4개 비치돼 있어 부모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것을 지켜보며 쉴 수 있는 공간이었다. 다른 엄마들과 모여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기에도 적합했다.

단지 외관은 기존 커튼월보다 우수한 커튼월 특이 적용돼 디자인과 실용성을 동시에 만족시켰다. 커튼월 특이 최근 서울 강남 등의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미려한 외관으로 핫한 트렌드가 된 외벽 디자인으로, 최고층에는 스카이 커뮤니티가 조성돼 있다.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단지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와 스카이 파티룸, 스카이 브릿지 등 시설이 들어서 있다.

야외에는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 있었는데, 앉아서 운동하는 트윈트위스트, 서서 허리를 돌리는 롤링웨이스트 등 다양한 장비가 마련돼 있었다.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는 단지 옆에 의왕 시청이 있으며 반경 1km 내에 의왕경찰서, 의왕소방서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가 위치해 풍부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단지내 8900㎡ 대규모 녹지 공간과 870 전 세대 남향 위주의 배치로 삶의 여유를 담은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오봉산을 담은 대규모 녹지공간이 마련돼 있는데, 산속에 있는 단지라 기존 녹지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난 혜택"이라고 설명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e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입구.



반도체 업계  
AI 시장 본격 진출  
韓, 초격차 중요성 커져  
03



Life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오픈  
니



# 124년 연구 담은 ‘홍삼 에너지’ 초밀도 장벽으로 피부시간 되돌리다



아시아 전통 생약으로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오리지널 슈퍼푸드 ‘홍삼’의 효능은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그런 홍삼을 화장품으로 재탄생시킨 브랜드가 있다. 바로 KGC인삼공사의 화장품 브랜드 ‘동인비(DONGINBI)’다. 동인비는 오랜 전통과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문화유산의 가치가 뛰어난 ‘정관장 홍삼’을 계승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와 조화를 이루며 인종 관계 없이 모든 피부의 건강한 스킨 솔루션을 제시한다. 1899년 정관장으로부터 시작된 124년의 홍삼에 대한 연구 성과와 40여년의 홍삼 뷰티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프리미엄 뷰티 브랜드다. 홍삼의 효능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홍삼 화장품으로 자리매김했다.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 동인비 1899 시그니처 오일

동인비는 정관장 6년근 홍삼 한 뿌리의 힘이 그대로 응축되어있는 고순도 ‘홍삼오일’을 시그니처 원료로 한다. 홍삼오일은 31가지의 정교한 공정 기술로 추출되며, 피부 장벽 강화와 피부 밀도를 탄탄하게 채워주는 데 도움을 준다.

현재까지 ‘1899’ 라인을 비롯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일리 안티에이징 케어 아이템으로 구성된 ‘자생’, 고농축 홍삼 성분을 함유해 집중 안티에이징 케어에 도움을 주는 ‘진’, 홍삼응축수가 건강한 피부결로 가꾸어주는 고보습 라인 ‘윤’, 홍삼 히알루론산이 촉촉하고 맑은 수분 피부를 선사하는 ‘하이드라바운스’까지 특화 성분 및 효능에 따라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췄다.

그중 피부 장벽 안티에이징 케어를 위한 대표 제품으로 동인비의 ‘1899 시그니처 오일’이 있다.

우리의 피부는 일반적으로 35세를 기점으로 피부 표피 지질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 바로 이때 피부 장벽이 같이 무너지게 된다.

피부장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피부 표피 지질은 지방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지방산은 각질층의 약산성을 유지시켜 항균 및 피부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세라마이드의 생성 및 합성에 필수적인 성분이기도 하다.

노화와 피부 장벽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방산이지만, 지방산의 주요 성분인 리놀레산(linoleic acid)은 체내 생합성이 불가해 외부에서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이에 결핍된 지방산을 효과적으로 공급해주는 홍삼오일이 ‘피부장벽 안티에이징’ 케어를 위한 탁월한 성분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홍삼오일은 체내 합성이 안되는 리놀레산을 비롯해 타 오일 대비 다양한 지방산을 고함량으로 함유하고 있다. 또 피부 표피의 각질층은 소수성(물과의 친화력이 적은 성질)을 띠어 수분보다 유분을 더 잘 흡수하는데, 홍삼오일은 홍삼의 소수성 성분



동인비 1899 시그니처 오일.

홍삼 연구성과, 뷰티 테크놀로지 집약  
6년근 홍삼 한 뿌리 힘 그대로 응축해

고함량 지방산, 소수성 성분 포함해  
피부 장벽 강화, 탄탄한 밀도에 도움

산뜻하고 가볍게 흡수되는 워터타입  
보습, 윤기에 빠른 관리까지 가능해



동인비 1899 워터타입 오일 에센스.

/KGC인삼공사

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높은 흡수력을 지녔으며 피부 보습 유지와 피부 장벽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관장은 1970년부터 지금까지 약 40여년간 지속적으로 연구해 발전을 거듭한 결과, 7가지의 특허를 획득하는 등 뛰어난 홍삼오일 제조 기술력을 입증했다.

31단계의 복잡한 제조공정과 27개 항목의 품질검사를 거쳐 까다롭게 생산한 홍삼오일은 동인비 제품에 적용된다. 특히 고순도의 홍삼오일이 오롯이 담긴 제품이 바로 동인비 ‘1899 시그니처 오일’이다.

제품에 함유된 홍삼오일은 100% 정관장 홍삼의 계약재배로 생산되며, 한 뿌리에 한 방울만 얻을 수 있는 귀한 원료다.

사용 하루만에 피부 장벽이 27% 개선되는 효과가 입증되었고(2022년 8월 22일~9월 23일 민감성 피부 대상 인체적용 시험 완료) 사용 4주 후 피부 치밀도, 피부결, 피부 항산화 개선도 입증했다.

좀 더 가벼운 타입의 제형을 찾는 소비자에게는 ‘1899 워터타입 오일 에센스’를 추천한다. 특허 받은 성분 ‘RG진세넬글로우’를 담아 피부에 보습감을 전하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정돈해준다. 여기에 피부 흡수력을 극대화하는 혁신적 기술인 트랜-디 테크(Tran-D Tech)도 적용했다.

신개념 워터 타입 오일 에센스 제형은 촉촉하면서 가볍고 빠르게 흡수되어 끈적임 없이 산뜻한 마무리가 가능하며 사계절 내내 아침, 저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가볍고 산뜻한 사용감에 어울리도록 인삼꽃향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프레시한 오리엔탈 플로럴 향이 편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한다.

동인비 관계자는 “‘1899 워터타입 오일 에센스’는 가볍게 흡수되면서도 피부에는 충분한 보습과 윤기를 부여해 뛰어난 제품력에 스피디함까지 갖춘 아이템”이라고 전했다.

1899 시그니처 오일을 비롯한 동인비 제품과 다양한 프로모션은 전국 주요 정관장 라운지, 동인비 온라인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K리그 4팀, 아시아챔스리그 1차전 전승...16강 진출 발판  
▲류현진 PS서 볼 수 있나...‘WC 2위’ 토론토, 가을야구 향해 성큼 /사진 뉴시스

▲한국선수단, 선수촌 입촌식...“노력 헛되지 않도록”  
▲박태환도 겪었던 中 수영 도핑 텃세... 대비 마친 수영대표팀



▲이정훈 수영 감독 “金 6개 목표...선수들 컨디션 최상”  
▲이강인 합류하는 황선홍호, 오늘 태국 잡으면 16강 확정 /사진 뉴시스

SK telecom

T roaming

# 혜택이 넘치는 가족로밍의 탄생

가족 중 1명만 baro 요금제 가입하고 3,000원만 추가하면 더 넉넉해진 데이터를 온 가족이 공유하고 온 가족 baro 통화, 문자 무료



### 더 넉넉해진 baro 요금제 혜택

- 혜택1. 전 세계 190개국에서 내 폰 내 번호 그대로
- 혜택2. baro 통화, 문자 무료
- 혜택3. 0 청년 요금제 가입 고객님 상시 50% 할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유치 SK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WAVE

baro 요금제 가입 시 문자는 기본 제공, T전화 앱을 통해 baro 통화 이용 시 음성로밍 요금 미발생(한국 및 방문국 외 다른 국가로 발신 제외) 0 청년 요금제 가입 시 50% 할인 자동 적용 | 할인 횟수 제한 없음 | SK텔레콤 가족결합상품에 가입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증명 필수 | 자세한 내용은 T 월드 홈페이지 참고

